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碩士學位論文

박완서 소설의 인물 연구

-『친절한 복희씨』를 중심으로-

濟州大學校 敎育大學院

國語敎育專攻

李 在 原

2016年 2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박완서 소설의 인물 연구

-『친절한 복희씨』를 중심으로-

指導敎授　文 聖 淑

李 在 原

이 論文을 敎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5年 12月

李在原의 敎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

委員 _____ ㊞

委員 _____ ㊞

濟州大學校 敎育大學院

2015年 12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 Study on Characters in Park Wan-Seo's Novels

- Focusing on 『Kind Mrs. Bokhee』 -

Lee, Jae-weon

(Supervised by professor Moon, Sung-Sook)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2015. 1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2015. 12.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國文抄錄>

박완서 소설의 인물 연구

-『친절한 복희씨』를 중심으로-

이 재 원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지도교수 문 성 숙

이 연구는 박완서의 소설집 『친절한 복희씨』에 수록된 단편소설의 인물 분석을 통해 박완서 소설의 이해를 한층 더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작가는 자신이 나이 듦에 따라 노년에 대한 관심을 소설로 표명하여 생에 대한 세계관이 더욱 넓어졌음을 보여주었다. 다양한 경험과 삶에 대한 통찰을 근본으로 한 박완서의 노년소설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높이 평가 되고 있다.

『친절한 복희씨』에는 주로 노인 인물이 등장한다. 작가는 자신이 노년기를 접하면서 노인을 바라보는 인식의 문제와 자식들과의 불화 같은 문제를 다루고 이를 통해 노인들의 소외 등 다양한 노년의 삶을 소재로 노년 문제를 드러내고 그와 함께 해결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Ⅱ장에서 먼저 선행연구가 제시한 개념을 검토하면서 후기소설의 범위 및 작품을 설정하고 주를 이루는 노년소설의 개념과 제시하였다. 긍정적 자아성찰과 화해를 주제로 하여 노년의 소외문제나 자아정체성의 문제를 화해와 자아성찰로 갈등을 해결하는 주제를 다룬 「그리움을 위하여」, 「그 남자네 집」,「후남아 밥 먹어라」, 「거저나 마찬가지」의 인물을 분석하였다. 칠순의 나이에 시작하는 노년의 사랑을 통해 나이가 들어도 젊은 세대와 같이 사랑의 감정이 존재한다거나 황혼기에 인생 재발견의 의미를 찾게 한다. 노인인 여성이 화자로 등장하여 이전의 작품들과 비교해 볼 때 결혼관도 물질적 가치관에서 진정한 사랑과 남녀평등의 결혼관으로 변화하였고, 환갑, 진갑을 넘긴 나이에도 당당하게 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랑을 선택하여 서로 존중하며 평등하게 생활하는 모습에서 노인의 재혼문제를 긍정적 시각으로 보여준다. 이를 통해 노년의 완숙함과 지혜를 강조하였다. 전쟁 체험의 자전적 소설에서도 전쟁의 비참함이나 폭력성에 무게를 두기보다 옛사랑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아성찰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Ⅲ장에서는 노년의 당당함과 지혜로움이 그려진 박완서 소설의 인물의 양상을 파악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남녀불평등의 사회구조 속에서 늘 피해당하고 소외되었으나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화해와 소통으로 이어지는 가족 간의 화합 등 모든 면에서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작가가 말하고자하는 노년의 원숙함, 감수성, 관용과 이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촛불 밝힌 식탁」, 「그래도 해피엔드」 두 작품을 통해 작가는 젊은 세대의 노인에 대한 무관심을 비판하고 있다. 노인의 감정과 삶에 대한 애정을 존중하지 못한 사실을 성찰하게 하고 노인의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라든가 노인의 감정을 잘 드러내어 후세대의 관심의 필요성과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이 작품은 노년의 삶의 외로움과 쓸쓸한 감정들을 잘 그려내면서 노인들이 감정과 삶을 존중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억압 속에서 고통 받는 여성들의 삶의 모습을 소설로 형상화하였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노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런 문제들을 작품화 하였다.

박완서의 노년소설은 노년에 대한 환상이나 기대보다는 노년의 현실의 삶과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만 결론은 언제나 희망적으로 용서와 화해로 평화로운 노후 생활을 누리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나이 듦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박완서의 긍적적 가치를 전달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박완서의 작품은 노년의 삶만을 조명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사회적 관심으로 확산시키고 이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유도하였다. 세대들 간의 사회적 소통 방법을 제시하는 등 거시적으로 통찰하는 안목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3

3. 연구방법 9

Ⅱ. 긍정적 자아성찰과 화해의 인물 12

1. 화해와 소통의 가치 지향 14

2. 과거의 회상과 자기 성찰 20

3. 정체성 회복과 자아 발견 27

Ⅲ. 관용과 지혜로움의 노년 인물 39

1. 상처의 치유와 융합으로의 복원 40

2. 가족공동체의 회복 갈망 44

3. 노년의 지혜로움과 주체적인 삶 54

Ⅳ. 문학사적 의의 63

Ⅴ. 결론 65

참고문헌 67

<Abstract> 71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Ⅰ. 서론

1. 연구 목적

박완서는 1970년 장편『나목』으로 등단한 후 6.25 전쟁의 상처와 남북분단,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물질만능주의의 세태 비판, 소외계층인 노인문제에 대한 현실고발, 남성중심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억압과 갈등 등 우리 근대사의 실상을 폭넓게 그려낸 작가라 할 수 있다. 초기 소설에 드러나는 중산층의 허위의식에 대한 예리한 비판이라든가, 자신의 가족사에 근거한 분단 비극의 형상화, 남녀차별이 심했던 시절의 경험을 통한 가부장제의 모순 지적 등 작가가 주로 다루어 온 주제들은 독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이것은 작가가 우리 현대사에서 중요한 시기 즉, 일제 강점기로부터 해방에 이르는 기간 그리고 해방기의 혼란으로부터 한국전쟁의 참사에 노출된 시기 등 굴곡진 삶을 살아왔다는 점에서 삶의 내용이 개인적 삶의 양상만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작품들의 또 다른 특징은 여성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작품에 반영해왔다는 점이다. 일상적인 현실에서 소시민적 삶의 모습을 소재로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어 세태소설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한국여성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여성문제의 양상을 파헤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어머니'는 모성적 인간애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 속에 나타난 어머니의 삶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까지 해내는 강인한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는 작가 자신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의 보호 아래 성장한 작가의 개인적인 전기[1]와 관련이 있다. 또한 가부장제의 관습을 옹호하고 남아선호사상을 인정하여 전수하는 역할을 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어머니'는 남아선호사상에 젖어 아들에게만 편중된 모성애를 드러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외된 딸들은 자신의 존재와 성의 정체성에 큰 혼란을 겪게 된다. 즉, 전통적 가부장제의 희생자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니가 스스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딸들과 대립하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

---

1) 박완서, 『못 가 본 길이 더 아름답다』, 현대문학, 201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박완서는 2011년 81세 나이로 별세하기 전까지 다양한 경험과 삶을 바탕으로 창작활동을 지속하였다. 그런 만큼 노년의 시각에서 예리한 통찰력으로 그려진 그의 소설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높이 평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기의 작품 연구는 아직 그다지 많지 않다, 이 연구는 2000년 이후 발표된 후기 작품집인 『친절한 복희씨』에 수록된 작품들의 인물을 연구하여 그 양상과 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물은 그 자체가 모든 행동을 주도하며 소설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인물과의 관계를 통해 자기 존재의 어떤 일면을 보여주기도 하고 소설의 배경을 이루는 시대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한다.[2] 또한 작가가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에 의해 인물의 성격이나 유형이 정해지며 작가의 의도에 따라 작품 속 사건을 대하는 인물의 태도가 달라진다. 이는 인물을 통해 작가의 가치관과 의식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3]

.박완서 소설의 인물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주인공 위주이거나 여성인물과 관련된 것이다. 이 연구는 작품 속 특정인물에 한정하지 않고 이야기 전개 과정에 나타나는 각 독립된 인물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1970년대 작품에서는 전쟁과 분단 체험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쟁의 원인이나 전쟁과정, 분단 상황보다는 가족의 이별이나 상처를 드러내고 그것을 치유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여성인물들은 전쟁의 폭력성과 비극성을 체험했고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주체성을 상실한 소극적이고 순응적인 주변적 여성상으로 그려진다.

1980년대에는 물질만능의 사회의식이 팽배해지면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와 노인문제에 관심을 두고 창작된 작품들이 많다. 또한 다양한 이데올로기 비판을 주제로 한 작품과 여성의식의 한층 심화되어 창작되었다.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상황 속에서 맹목적 수용을 거부하고 주체성을 자각하지만, 남성을 투쟁의 상대로만 여겨 조화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파국에 이르는 이야기가 많다. 따라서 주체성 확립을 위해 방법을 모색하는 과도기적 여성상이라고 볼 수 있다. 남성중심주의의 오랜 관습으로 인해 여성에 대한 편견이 팽배하고 성차별이 존재하는 사

2) 권영민, 『한국 현대소설의 이해』, 태학사, 2006, p.123.
3) 손수경, 「박완서 소설에 나타나는 인물의 주체성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회에서 여성들의 자아인식 과정을 작가는 사회와의 연결고리에서 찾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작품들은 남성과 여성을 대립적 관계가 아닌 주체적 인격체로 인정하며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이야기로 그려지고 있다. 이는 여성상이 주체적으로 재정립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완서 소설에서는 남아선호사상의 허구성 비판이 극명하게 드러나지만 결혼생활을 불화 없이 유지하는 일이 여성다움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여성 정체성 확립문제와 관련해서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그러나 인물들이 정체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자아를 발견하고 주체성을 회복해나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다룬 점, 여성 문제를 분명히 드러내어 그 극복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된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에 주로 연구되었던 전쟁체험, 여성성, 남아선호, 물질만능의 세태를 거론하는 주제적 측면에서 벗어나 2000년 이후의 후기작품인 『친절한 복희씨』에 수록되어 있는 단편소설 「그리움을 위하여」,「그 남자네 집」, 「후남아 밥 먹어라」, 「거저나 마찬가지」, 「친절한 복희씨」, 「촛불 밝힌 식탁」, 「마흔아홉 살」, 「그래도 해피 엔드」, 「대범한 밥상」 의 작품 속 인물을 분석함으로써 이전 작품의 인물들과 비교하여 달라진 양상을 살펴보고 박완서의 작품을 더욱 폭넓게 이해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1980년대부터 여성작가 소설의 양적 증가와 함께 그에 따른 연구도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박완서가 보여준 소설세계는 시대적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제재도 달라지면서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상처 및 극복의지, 산업화 이후의 물질만능주의 가치관에 대한 비판,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 노년에 대한 관심의 표명 등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분단문제와 그 극복의지에 관한 연구들이다. 황광수[4]는 「나목」에서 전쟁으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어 혼자 남겨진 여성의 외로움과 공포를 보여주고 전쟁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것 이외의 전쟁의 의미나 민족적 아픔까지 아우르지는 못했다고 하였다.「그 해 겨울은 따뜻했네」에서는 만남과 화합, 나아가서는 통

4) 황광수, 「민족문제의 개인주의적 굴절」,『창작과 비평』, 1985, 가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일의 어려움을 지나치게 강조하였으며, 민족이나 사회문제를 다루는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사회나 역사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민족문제를 개인주의적으로 굴절시켰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윤병로[5]는 6·25 전쟁을 소재로 한 박완서의 소설에 대해 개인의 고통이 민족의 고통으로 확대하고 민족의 원한으로 융해되게 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았다.

박완서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은 전쟁이나 사고로 인해 남편을 잃고 가장의 역할을 대신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꾸려나간다. 작중인물들이 강인한 생명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억척스러운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대부분 남아에 집착하는 모성으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중산층의 삶의 허위성과 물질만능주의 가치관, 현대인의 이기심을 강조한 평가이다. 작가는「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주말농장」,「도둑맞은 가난」,「낙토의 아이들」등 작품에서 중산층의 허위와 허세를 풍자하여 중산층의 속물근성과 이기심을 다룬 세태 비판적 시각을 보여준다. 그러나 문제의식을 강조한 나머지 작중인물을 지나치게 희화화하여 감정적으로 처리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이선영[6]은, 박완서의 문학에서 부딪치게 되는 것은 뿌리 깊은 생명주의와 날카로운 비판의식이라 보고 그의 생명주의는 그 자체를 방해하는 현대문명의 인간소외로 보았고 이로 정치적·사회적 모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심화되었다고 하였다. 김영무[7]는 박완서의 작품이, 안이한 소시민적 인생관과 삶의 방식을 비판적 비유를 통해 생활의 무게와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렸다고 하였다.

염무웅[8]은 「휘청거리는 오후」를 통해 우리 사회의 허위와 물신주의, 중산층 소시민의 몰락 위기에 처한 운명이 드러난다고 하면서 소시민적 행복감의 허위를 간파하고 일상 속에 숨겨진 고통과 불행을 가차 없이 예리하게 지적하였으나 허위의 사회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보았다. 강인숙[9]은 박완서 문학을 '도시와 모성'이라고 규정하고, 1980년대 이후 서울 즉, 도시의 생

5) 윤병로,「분단 극복을 위한 민족적 정서로의 승화」,『박완서 문학상 수상 작품집』, 훈민정음, 1993.
6) 이선영,「세파속의 생명주의」, 『현대문학』, 1985.
7) 김영무,「박완서의 소설세계」,『세계의 문학』, 1997.
8) 염무웅, 「사회적 허위에 대한 인생론적 고발」,『세계의 문학』, 1979.
9) 강인숙,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도시와 모성』, 둥지, 1997.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태와 변모과정이 그대로 그려지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박완서의 글쓰기를 관통하는 것은 유토피아와 멀어지는 도시적 삶에 대한 허물벗기기 작업이라고 보았다. 이동하[10]는 박완서가 활달한 언어구사와 칼날 같은 비판정신으로 이 시대의 풍속적 혼란과 타락을 고발하는 데 천재적인 솜씨를 발휘하고 있지만, 사회 문제의 본질을 보다 심원한 통찰로 끌어올리지는 못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평가들은 작가가 배금주의 사상에 물든 중산층의 이기적인 삶의 모습을 그려냈으나 자신이 속한 계층인 중산층적 시각 즉, 보수성이나 과거 지향성의 한계에 부딪혀 본질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또한 주제별로 포괄적으로 다루거나 현실비판 의식을 중심으로 다룬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셋째, 여성의 정체성 인식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 한국여성연구회의 김경연, 전승희[11] 등은 민족·민중론과 맥을 같이 하는 여성해방의 시각에서 작품을 분석한 바 있다. 이들은 반 여성성이 우리 사회의 반민족·반민중적 성향과 일치한다고 파악하고 여성문학론도 민족·민중문학론과 더불어 맥을 같이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역사적·사회적의식의 결여로 계층문제를 비롯한 사회구조적 모순에 대한 연구는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박완서의 중산층적 시각의 한계를 지적하고 사회전반의 문제를 다루는 작품에서조차 여성문제를 개인의 일로 축소시키고 방관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작가의 작품세계는 여러 가지 가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자기 성찰의 모습이 반영되어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회의식의 결여라거나 중산층적 시각의 한계라고 단순화 하는 것은 성급한 평가일 수도 있다.

하응백[12]은 박완서 문학이 여성의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면서 가부장적 사회구조 속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딸, 아내, 어머니의 목소리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박완서의 문학은 수다스러운데 그것은 옳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과 모성적 사랑이 담겨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그의 문학의 두 기둥이라고 하였다. 1980년대에 서구문화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가족문화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적인 인간관계가 개인적 인간관계로 변화되면서 핵가족화된 삶은 가

10) 이동하,「70년대의 소설」, 『한국문학의 현 단계』, 창작과 비평, 1982.
11) 김경연, 『여성해방의 시각에서 본 박완서의 작품세계』, 창작과 비평, 1988.
12) 하응백, 「모성, 그 생명과 평화」, 『배반의 여름』, 문학동네, 2006.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족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최명숙[13]은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서적인 갈등은 기존세대와 신세대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인식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조혜정[14]은 박완서 문학에 대하여 남근중심적, 남성중심적, 여성해방 등 세 가지로 분류하여 고찰하면서 남성작가들이 여성작가를 논할 때 범하는 무의식적인 몰이해를 지적하였다. 그는 비평은 작품세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소설의 이해를 돕는 살림의 비평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박완서의 작품세계를 성 대결로 내몰아 작품을 비하해왔다고 하였다.

김영희[15]는 산업화가 추진되던 70년대의 생활양식이 평범한 여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드러내고 여성문제를 의식적이고 직접적으로 그려내었다고 평가하였다. 송지현[16]은 박완서의 「살아 있는 날의 시작」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연관된 여성문제를 사적인 것으로 전환하여 여성문제를 총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윤철현[17] 역시 박완서의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살아 있는 날의 시작」, 「서 있는 여자」 등 여성문제를 다룬 작품에서 부조리한 현실 그 자체를 고발하기 보다는 개인적 사건에 치중하여 개인적 통속물의 각색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1970년대 일부의 단편소설에서만 여성문제가 드러나 있고 1980년대 소설들은 통속적인 수준이어서 성과가 미미하다고 비판하였다. 한상희[18]는 박완서 소설의 작중인물들을 유·청소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나누어 시기별로 해당 작품을 선정하여 각 시기의 작가의식을 살펴보고 시기별로 작중인물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작가의식과 그 변화양상을 찾아보는 데 의의를 두었다. 김지영[19]은「살아 있는 날의 시작」이 여성의 문제를 남성과 여성의 대립구조로 보지 않고 여성 자신이나 여성들 간의 문제를 통해 이야기하며 사회구조적 문제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고 평가하였다.

---

13) 최명숙, 「한국 현대 노년 소설 연구」, 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14) 조혜정, 「박완서 문학에 있어 비평이란 무엇인가」, 『작가세계』, 1991.
15) 김영희, 『근대체험과 여성-박완서·김인숙·공선옥의 소설』, 창작과 비평, 1991.
16) 송지현, 『페미니즘 비평과 한국소설』, 국학자료원, 1996.
17) 윤철현,「박완서 소설 연구」, 부산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1.
18) 한상희, 「박완서 소설의 인물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19) 김지영, 「박완서 소설의 문학 교육적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권명아[20]는 박완서 소설에 등장하는 '강인한 모성상'의 역사적, 사회적 의미에 주목하고, 한국의 현모양처상이 역사의 질곡에 대응한다는 긍정적인 의미와 가족이기주의, 보신주의, 경제제일주의 등 한국의 부정적 양상과 결합되는 이중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이정희[21]는 오정희·박완서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소설의 근대성에 접근하는 논의에서, 박완서는 외향적인 자기발견 과정 속에서 여성 집단 내에 일종의 전통으로 흐르고 있던 여성해방의 이념으로 미래세계를 열어갈 대안적 가치를 발견했다고 평가하였다.

황도경[22]은 전쟁과 분단의 상처, 소시민의 일상, 여성문제, 노년문제 등 박완서는 우리의 일상으로부터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끌어내는 작가로서 그가 말하는 자유나 생명, 삶의 소중함이 힘을 얻는 이유는 우리 삶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김경희[23]는 모성의 신화로 포장되었던 여성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예전처럼 어머니가 딸을 통해 인생을 보상받으려 하지도 않고 딸도 어머니처럼 살지 않겠다고 벼르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노현주[24]는 남성 질서로부터 소외된 여성 주체가 주어진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박완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여성성과 가치관에 대해 고찰하였다.

김혜경[25]은 노년소설에 나타난 노년기의 다양한 삶에 관해 '하강서사'와 '상승서사'의 두 가지 개념으로서 노인문제와 부정적 서사측면과 노년 순응의식의 긍정적 서사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조희경[26]은 박완서의 노년소설은 우리사회에 만연된 허례허식과 체면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박성천[27]은 형식적 측면에서 박완서의 자전소설을 중심으로 서술전략을 분석하였다. 그의 자전소설은 텍스트가 그의 삶의 일부이며 이야기의 시간과 서술의 시간이 서로 교차하며 허구적 변형에 의해 스토리가 전개되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이은하[28]는 박완서 소설에서 갈등은 주로 외부에서 발생하여 내적갈등을 일으

---

20) 권명아, 「박완서 문학연구-억척 모성의 이중성과 딸의 세계의 의미를 중심으로」, 『작가세계』, 1994.
21) 이정희, 『오정희·박완서 소설의 두 가지 풍경』, 청동거울, 2003.
22) 황도경, 「이야기는 힘이 세다-박완서 소설의 문체적 전략을 중심으로」, 『실천문학』 통권29호, 2008.
23) 김경희, 「한국 현대소설의 모성성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5.
24) 노현주, 「박완서 소설의 자아실현욕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25) 김혜경, 「박완서 소설의 노인문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26) 조희경, 「일상 속의 진실 캐기-박완서론」, 『치유와 회복의 서사』, 푸른사상사, 2005.
27) 박성천,「박완서 자전소설의 서술전략」, 『한국언어문학』, 한국언어문학회, 2006.
28) 이은하,「박완서 소설의 갈등 발생 요인 연구」, 명지대 학교박사학위논문, 200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키며 자아정체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이유와 갈등구조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이선미[29]는 소설 속 인물들을 가장적 인물, 분열적 인물, 반성적 인물로 구분하여 자신의 속내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작품 속 인물들이 이중적 서술을 통해 독자에게 이면을 보여 주고자했다고 분석하였다. 임규찬[30]은 일상성의 문제에 깊숙이 천착하여 사회의 권력과 이데올로기 등이 실제 개인의 일상적 삶에 어떻게 작용하고 변화시키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삶과 인간의 진정성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하였다.

정은비[31]는 박완서의 단편소설을 대상으로 그 속에 드러나는 여성성을 여성의 주체성과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여성성의 구현은 여성의 경험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여성의 억압적이고 세속적인 경험이 드러난 작품을 중심으로 유예된 여성성 둘째, 부당한 현실 권력이나 원칙에 저항하는 의식이 드러난 작품을 중심으로 진정한 여성성을 찾으려는 진취적인 여성성 셋째, 억척스럽고 건강한 여성상이 드러난 작품을 중심으로 주체적인 삶을 통해 타인을 포용하고 이해하는 여성성을 밝히려 했다.

손윤권[32]은 박완서의 수필과 소설의 상호텍스트성에 주목하여 작가의 경험이 소설에서 변모하는 과정을 분석하였고 한송이[33]는 자전소설 논의와 검토를 통해 박완서 소설 속 자전적 인물의 변화양상을 고찰하였다,

이선미[34]는 박완서의 체험은 발설할 수 없었던 '억압이 체험'을 잊지 않으려는 강한 동기를 지니는 것이며, '소설'은 과거의 경험이 되살려지는 유일한 장소라고 하면서 체험적 사실들을 은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나 분단 같은 이데올로기들이, 전후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규범의식으로 내면화되어 내면적 자아를 억압하고 규범적 자아에 동일화되기를 강요했던 사회·역사적인 요인들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규범의식을 내면화 하는 과정에서 '억압은 일반적인 것이 되고 그 억압된 자아가 전면적이거나 미미한 상태로 잠재되어 있는 인

29) 이선미,「여성언어와 서사」, 『작가세계』, 2000, 가을
30) 임규찬,「박완서와 6·25체험」, 『박완서 문학 길찾기』, 세계사, 2000.
31) 정은비, 「박완서 단편소설에 나타난 여성성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32) 손윤권, 「박완서 자전소설 연구: 상호텍스트 안에서 담화가 변모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33) 한송이,「박완서 단편소설의 자전적 인물 변화양상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34) 이선미,「박완서 소설의 서술성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1.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물의 내면은 상실의 역사와 억압의 체험을 확인하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며 서술 방식의 연구와 인물의 성격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김보민[35]은 작가의 노년소설에서 유교적 가족제도와 남아선호사상을 비판하면서 남녀평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였다. 효는 강제적으로 행하는 의무가 아니라 인간적 연민과 사랑에서 시작해야함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자신이 나이 듦에 따라 노년에 대한 관심을 소설로 표명하는 등 더욱 다양한 주제들로 형성화 하였다. 노년에 대한 관심은 작가의 생에 대한 세계관이 더욱 넓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상과 같이 박완서의 작품은 대부분 주제론적 관점에서 연구되었고 전쟁체험과 분단문제, 물질만능주의와 중산층의 허위의식에 대한 비판, 여성 해방론의 시각에 입각한 여성의 자아의식과 정체성 탐구 등이 대부분이다. 최근에 와서 성장소설과 가족관계의 갈등에 주목한 논의와 서술기법 측면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을 참고하면서 후기인 2000년대 이후의 단편소설에 나타난 고부 간 갈등 문제, 여성의 정체성 문제, 노인 소외 문제를 드러내는 인물을 중심으로 작가의 인식태도를 살펴보고 소설교육의 이해를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및 한계

박완서의 작품에서 여성문제, 분단문제, 노년문제는 일시적인 관심사항이 아니라 창작 활동하는 전체기간 동안 시대별로 지속되었다.

박완서의 작품을 발표 시기에 따라 전기, 중기, 후기로 구분할 때, 전기인 1970년대에는 근대화와 산업화가 최고조에 이르렀고 정치적으로는 폐쇄적이었던 반면 경제적으로는 급격한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졌던 시기이다. 정치적 억압과 사회적 가치관의 혼란은 윤리의식이 결여를 초래했고 당시 사회의 불안의식을 야기하였다. 이 시기에는 사회, 문화적 양상과 전쟁으로 인한 상처의 치유와 극복

35) 김보민, 「한국현대 노년소설연구」, 인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문제를 소설의 인물을 통해 다양하게 보여주었고, 1980~90년대는 민주화 운동의 열기가 고조되고 여성문제에 대해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로 여성의 자각과 자기인식을 문제로 다룬 여성의 자각과 자기인식을 문제로 삼은 작품들을 집중적으로 발표하였다. 이것은 작가가 당대의 사회적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박완서 소설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주로 여성으로 대개 남성중심 사회에서 벗어나고자하나 현실에서 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패하거나 유예되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작가는 억압받고 현실에서 소외된 여성의 상황을 폭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소설에서 인물은 이야기를 형상화하고 작가의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기본적인 구성요소이다. 또한 현실을 반영하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며 작가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반영한다.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얻어진 논의의 성과와 한계를 수용하여 아직 다른 작품에 비해 논의가 미흡한 후기의 작품집인 『친절한 복희씨』에 수록된 작품의 인물을 연구하여 후기작품의 인물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첫 번째 유형으로 자아를 성찰하고 화해를 지향하는 긍정적으로 인물로 화해와 소통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물, 지난날의 회상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화해를 시도하는 인물로 나누어 분석할 것이다.

두 번째로 유교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노년의 인물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의 세계를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충돌하기 쉬운 현대 젊은 세대들과의 갈등을 관용과 지혜로 해결하고 있는 인물들과 로 나누어 전개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인물을 분석하는 것은 작가가 문학을 통하여 이루고자 했던 삶의 가치를 폭넓게 파악하는데 효과적이고 도움이 될 것이다.

Ⅱ장에서는 후기소설의 범위 및 작품을 설정하고 작가가 주로 다루었던 노년소설의 개념과 특징 알아볼 것이다.

긍정적 자아성찰과 화해를 주제로 하여 「그리움을 위하여」에서는 상전의식에서 오는 갈등을 자매애로 극복하는 과정에 나타난 화해와 소통의 가치를 지향하는 인물의 태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그 남자네 집」에서는 과거 회상을 통해 남성에게 의존해서 안정된 삶을 바라는 태도는 여성의 본능적이고 수동적인 것으로 과거의 삶에 대한 자기성찰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주체적인 삶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대한 자각이다. 「후남아 밥 먹어라」, 「거저나 마찬가지」를 통해 주어진 상황을 체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기존세대 여성들에 비해 모순된 현실세계를 자각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존재가치와 권리를 찾게 되는 정체성 회복의 갈망에 대하여 고찰할 것이다.

Ⅲ장에서는 노년의 당당함과 지혜로움이 그려진 박완서 소설들에서 인물의 양상을 파악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친절한 복희씨」에 그려진 상처의 치유와 융합으로의 복원과정을 통해 작가의식을 고찰할 것이다.

노년의 소외의식을 제재로 한 「촛불 밝힌 식탁」,「마흔아홉 살」에서는 노인의 부양문제와 관련하여 단절된 가족공동체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핵가족이 일반화된 현대사회에서 가족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살펴볼 것이다.

「대범한 밥상」,「그래도 해피 엔드」를 통하여 갑작스러운 환경변화에 대한 노인들의 부적응 문제와 죽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사회의 관심과 배려로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에서 노인의 관용과 그 의의를 고찰할 것이다.

아울러 작가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소설교육의 이해를 높이는 데 의의를 두고자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Ⅱ. 긍정적 자아성찰과 화해의 인물

소설에서 작가는 인물을 창조하고, 그 인물이 겪게 되는 삶의 내용을 통해서 전개된다. 소설에서 창조된 인물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인물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형상화시키고 줄거리를 이끌어 나간다. 소설에서의 인물은 작가의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36]이기 때문에, 인물의 성격 분석이나 유형분석은 주제를 파악하고 작가의 삶이나 가치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박완서의 단편소설집『친절한 복희씨』에는 총 아홉 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으며 화자는 대부분 중년과 노년의 여성인물이다. 이들은 주로 1인칭 주인공이며 빈민층에서 중류층까지 유형화 되어 있다.

Ⅱ장에서는 노년의 소외 문제나 자아정체성 문제를 화해와 자아성찰로 갈등을 해결하는 주제를 다룬 「그리움을 위하여」,「그 남자네 집」,「후남아 밥 먹어라」, 「거저나 마찬가지」의 작중인물을 분석할 것이다. 기존의 결혼과 관련된 작품은 여성들의 결혼을 통해 여성의 주체성 찾기, 남녀 불평등에 따른 불합리성을 부각시켰다면 「그리움을 위하여」에서는 노인의 재혼문제와 남녀의 역할이 평등하고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에서 결혼의 참의미와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과거 전쟁 상황 속에서의 사랑을 그린「그 남자네 집」은 다른 전쟁체험소설에서 가족해체 등 전쟁의 비참함과 비극성을 다룬 것과는 달리 과거 젊은 시절의 사랑을 회상구조로 그리고 있다. 화자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보다도 작아도 좋으니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집인데, 그 남자네 집은 경제적으로 아이를 낳아 기르는 평범한 생활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를 고백함으로써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후남아 밥 먹어라」에서 주인공인 '후남'은 남아선호사상과 남성우월주의의 전통적 가치관에 희생당해야 했던 여성이었으나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아들이 아닌 그녀를 기억함으로써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인식과 화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거저나 마찬가지」에서는 언니가 규정해 준 '나'의 존재감이 관계가 지속될수록 추락하는

36) 박혜숙, 『소설의 등장인물』,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과정에서 '거저나 마찬가지'의 함정을 깨닫고 정체성을 회복하게 된다. 거저 얻기를 버리고 떳떳하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사회의 부조리, 위선, 이중성, 허위 등 모순에 맞서는 당당한 행동이다. 이 두 작품에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회복과 한 인간으로서의 존재감 확인은 자아발견이라는 공통적 연관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의 삶을 객관적으로 형상화하는 소설에서 박완서는 노년기를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삶의 애환을 작품에 투영시키며 인생에서 자연스럽게 당면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병합시키려 노력한다. 박완서의 노년소설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노인들의 위기의식을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자식들과의 불화로 인한 노인소외 문제, 나이 듦에 따라 자연스레 동반되는 건강 문제, 노인의 정체성 찾기, 노부모의 부양문제, 노인들의 죽음 수용문제와 같은 것들이다. 하지만 그의 노년소설들이 노년기의 무력함, 늙음에 대한 회한, 희망이 없는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을 형상화한 것은 아니다. 노년인물을 통해 고독감이나 무력함 등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소설들도 있으나, 박완서는 사랑과 화해에 대한 열망을 지닌 긍정적 인물을 형상화함으로써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김병익[37]은 노년소설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노년소설의 특성을 노년기 인물의 "인간의 내밀한 분위기", "소멸의지를 해방시키고 싶은 바람", "삶의 원숙한 태도" 에 있다고 하였다. 김윤식[38]은 노년소설의 범주를 "65세 이상의 작가가 쓰는 작품"이라 규정하고 노인문제나 청년문제를 다를 수 있다고 하였다.

김승옥[39]은 노년소설의 내용과 관련하여 노년기의 외로움, 젊은 세대의 무관심, 경제적 빈곤 등이 우리사회의 심각한 노인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여러 논의들을 참고할 때 『친절한 복희씨』에 수록된 소설은 노년소설이 대부분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노인인물을 분석해 봄으로써 현시대의 노인들의 삶을 살펴보고 시대에 따라 달라진 노인의식을 파악해보는 것은 소설을 한층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

37) 김병익, 「노년소설 침묵 끝의 소설」, 『한국문학』, 1974. 4.
38) 김윤식, 「한국 문학 속의 노인성 문학-노인성 문학의 개념 정리를 위한 시론」, 『소설, 노년을 말하다』(김윤식, 김미현), 황금가지, 2004.
39) 김승옥, 「빛 바랜 삶들」, 『문학사상』, 1983. 6.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 화해와 소통의 가치지향

박완서는 자신이 나이 듦에 따라 노년의 삶에 관심을 보이고 사회 속에서 노인의 소외 문제, 건강 문제, 가족간 불화, 세대 간의 소통단절 문제 등 다양한 면에서 노인의 삶의 문제들을 드러내었다. 이를 통해 노인의 삶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사회적 위상을 찾는 시도를 보여준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고 나름의 멋을 내며,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노인의 삶에 대한 인식을 재조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움을 위하여」는 환갑 넘은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노인들이 등장하여 노인의 재혼을 재조명하고 있다. 주인공인 '나'의 사촌 여동생은 '나' 와 함께 늙어가는 처지로 남편이 빚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거처를 잃고 '나'의 집 근처 옥탑방으로 이사를 오게 된다. 작품 속 나와 사촌동생은 노년 여성들로 함께 늙어가는 처지이다. 둘은 같은 집에서 태어났으며, 유년기도 함께 보낸 사촌 자매이다.

> 나는 공부 잘하는 아이로 낙인찍힘으로써 집안일은 조금도 안 거들고 공부만 하다가 시집을 가게 되었다. 시집가서는 살림살이에 집착이 많은 시어머님과의 평화공존을 위해 살림살이에서 겉돌다가 남편의 수입이 늘면서 나 대신 시골서 상경한 소녀를 시어머니 조수로 붙여줌으로써 살림이라는 걸 영영 놓치고 말았다. 내가 시집살이를 할 50년대는 다들 살기가 지금과는 댈 것 아니게 곤궁했고 도농 간의 격차도 더 심해 집에서 한입이라도 덜려고 도시로 식모살이 오는 소녀들이 넘쳐날 때였다. 공부에 별 취미가 없던 동생은 중학교도 낙방을 해 초등학교 졸업에 그쳤다.
>
> 「그리움을 위하여」, pp.12-13

그러나 유년기 이후에 중학교도 못간 동생의 삶과 공부만 하다가 좋은 집으로 시집을 간 '나'의 삶은 대조적이다. '집안일을 거들고 두 동생의 뒷바라지도 잘한' 동생과 '딸년 대학공부까지 시켜서 남 좋은 일만한 나'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인생보다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딸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에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작가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 공부에 취미가 없고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지만 사촌 여동생에게는 '나'의 물질적 풍요로움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자유의지'가 있었다. 동생은 '나'로서는 선택할 수 없고 실행에 옮기거나 생각할 수조차도 없는, 사회적 관점에 알맞지 않은 진실한 사랑을 위한 결혼을 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주체적 의지가 있다.

> 남편이 병석에 있는 동안 동생은 나에게 내 자식들 보다 더 의지가 되었다. 환자의 몸과 마음에 보비위보다 더 좋은 효자는 없다. 동생은 그걸 완벽하게 해주었다. 내 남편이 투병중인 동안 나는 동생의 남편도 병석에 있다는 건 안중에도 없이 될 수 있는 대로 일찍 오게 하고 밤늦도록 붙잡아 두려고 했다. 설사 제부 생각이 문득문득 떠올랐다 해도 수고비를 넉넉히 쳐주니까 동생도 바라는 바이지 나를 심하게 여길 건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내가 과부가 된 지 삼 년 후에 동생도 과부가 되었다.
>
> 「그리움을 위하여」, pp.15-16

사촌동생은 살림도 할 줄 모르고 특별한 취미도 없는 '나'를 대신해 일주일에 적당한 요일을 정하여 청소와 빨래 밑반찬 등 집안일을 해준다. '나'는 천연덕스럽게 동생의 손맛을 마치 다 자신의 솜씨인 것처럼 행세하고 수고비를 넉넉히 쳐주는 등의 물질적 보상을 해주는 게 동생을 돕는 길이라며 동생을 부리는 일을 정당화한다. 이를 볼 때 '나'는 동기간의 우애보다는 자신을 동생과는 다른 부류로 생각하는 우월감에 젖어 있는 상전의식을 가진 인물이다.

더운 여름날 동생이 옥탑방 생활의 더위를 견디지 못해 친구가 있는 남해의 사랑도로 며칠 바캉스를 다녀오겠다며 떠났다. 일주일 정도면 올 거라고 생각했던 동생이 열흘이 지나도 동생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다. '나'는 민박집에서 동생을 부른 것은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게 하려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동생을 부려 먹고 싶어서일 거라고 생각한다.

> 사람을 구하라니 딴 파출부를 쓰란 얘기고, 지가 여지껏 고작 파출부 노릇을 했단 소리가 아닌가. 내가 절 어떻게 대접했는데 나는 치사하게도 그동안 내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동생에게 베푼 갖가지 혜택을 일일이 떠올리면서 그 배은망덕에 이라도 갈고 싶은 심정이었다. 제부가 죽은 후 하루 걸러 오도록 하면서도 수입이 줄지 않도록 일당을 올리고, 김장이나 명절 손님 초대 등 가외로 부를 때는 후하게 웃돈을 얹어 줬으며 비싼 옷도 조금만 싫증이 나면 저한테 아낌없이 물려줬으며, 집에 고기나 갈비가 남아돈다 싶으면 즉각 저한테 넘겨줬으며,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어린이날엔 내 손자는 안 챙겨도 넷이나 되는 제 손자들은 꼬박꼬박 챙겨서 설빔이나 선물을 장만했으며, 외국여행 갔다가도 제가 행여 며느리한테 얕보일까 봐 며느리 주라고 비싼 영양크림 사오는 걸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것 등등 열거 하자면 한정이 없었다. 그게 어떻게 보통 파출부에게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리움을 위하여」, pp.22-23

'나'는 '일당을 올리고', '후하게 웃돈을 얹어 줬으며',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등 행사에 손자들까지 챙기며 보통 파출부에게 할 수 없는 선물들을 해주었지만 진심으로 마음을 준 것이 아니다.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으나 자신의 동생에게 갖가지 물질적인 것들을 주는 것으로 파출부와는 다른 대우를 해 주었다는 식의 사고는 상전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다른 사람을 구해보라는 사촌동생의 말을 듣고 '이라도 갈고 싶은 심정'이었으며 배신감까지 느끼는 듯한 모습에서 짐작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나'는 마치 자신의 소유의 어떤 것이 남에게 빼돌려진 일을 당했을 때처럼 민박집에 대한 맹렬한 적의를 느낀다. 이는 동생의 부재로 느꼈던 불편함이 분노와 배신감으로 표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는 그동안 내가 저한테 베푼 온갖 혜택을 떠올리면서 제가 나한테 미리 아쉰 소리만 했더라면 뭘 못 해줬을까 집도 사줬을 것처럼 내 후한 마음을 마냥 부풀렸다. 그러나 사다가 내던지기만 하면 진수성찬이 저절로 차려지던 지상낙원은 잃어버린 뒤였다. 그 좋은 솜씨로, 예전 같으면 궁중 숙수를 해도 손색이 없을 솜씨로 섬의 거칠고 단순한 뱃사람의 밥상을 차려주러 간 것이다. 이건 돼지에게 진주 정도가 아니다. 어찌 보고만 있을 것인가. 나는 질투로 분기탱천하여 동생의 친동기들한테 전화통을 돌렸다.

「그리움을 위하여」, pp.30-31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추석장을 보고 와서 제수거리를 '냉장실, 냉동실로 나누어 넣는 것조차 생전 안 해보던 일처럼 남감'하게 느끼는 '나'는 사촌동생이 궁중 음식을 만들어도 손색이 없을 '그 좋은 솜씨'로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거칠고 단순한 뱃사람의 밥상'을 차리기 위해 떠났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하다. 이런 동생의 재혼을 말리려는 '나'의 마음은 실은 동생이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없어 반대한 것으로 이중적 면모를 드러낸다. 또한 그 마음이 사촌동생의 사랑에 대한 감정을 자신의 질투심이었음을 알게 된다.

> 영감님은 그전에 섬에서 나와 삼천포에서 날 기다리고 있었지. 내가 터미널에 내리니까 어찌나 기뻐하는지 마치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것 같더라구. 내가 언약을 지키리라고 백 퍼센트 믿은 건 아니었나 봐. 안 나타나면 서울까지 쫓아가봐야지 혼자 섬으로 돌아갈 순 없다고 생각했다니까.
>
> 「그리움을 위하여」, p.35

동생은 그 섬에서 만난 자상한 남자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 출렁이는 작은 배를 탔어도 영감님하고 같이 탔다는 생각만 하면 아무것도 겁나는 게 없고 마음이 편했다는 동생의 말을 들으면서 더 이상 동생을 부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다고 고백한다.

노년의 사랑을 다룬 소설이지만 「마른 꽃」에서 정욕이 없는 사랑은 겉멋에 불과하다는 것과는 달리 이 작품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려 깊은 인물의 모습을 보여준다.

> 영감님은 자기가 먼저 죽으면 나는 어찌 사나 내 걱정을 무지 해. 우리 집이 우리 동네서 민박집 다음으로 커. 짓기도 단단하게 지었고 아파트마냥 갖출 거 다 갖췄어. 그 섬에서 땅값 젤로 비싼 선창가에 있고, 그래도 팔아봐야 이삼천밖에 안 나간대. 영감님 재산 중에는 배 값이 되레 알토란 같다나봐 그건 자식들 몫이겠지. 난 영감님이 나는 하나도 걱정 안 하는 자기 죽은 후의 내 살 걱정까지 해주는 게 신기하고 고마울 뿐 더 바라는 건 없어. 오늘 먹을 양식과 잠자리 걱정 안하고 사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게 얼마나 좋은지 난 그걸로 족해. 이게 꿈인가 생신가 자다가도 꼬집어볼 적이 있다니까. 영감님 참 좋은 사람이야 집문서 옮겨주고도 천만 원짜리 통장도 내 이름으로 해줬어. 그 밖에 적금도 하나 들어줬구.

「그리움을 위하여」, p.38

동생의 새 남편은 나이 든 후에 만난 아내를 위해 경제적으로 현실적인 배려를 해주었다. 자기만을 믿고 섬으로 내려온 아내를 위해 자신이 죽은 뒤에 자식들이나 이웃들에게 소외받거나 외롭지 않게 혼자서도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집문서를 동생의 이름으로 해주는 등 경제적인 대책을 마련해 준다. 새 남편의 그런 마음에 동생은 감동하고 고마워한다.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 죽은 전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진심어린 배려를 해준다. 동생과 새 남편은 서로가 전 배우자의 차례상을 차려주고, 제사를 차릴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 노년임에도 두 사람은 진정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 주며 이를 통해 평등한 결혼생활의 모습을 보여준다. 노년의 시기에 사랑을 시작하는 모습을 통해 나이듦에 대해 인생이 저문다거나 시든다는 등의 쇠락의 의미로 표현되는 일반적 상식을 넘어 새로운 삶을 시도함으로써 노인의 삶을 재조명하고 있다.

영감님은 처음부터 석 달을 같이 산 지금까지 깍듯이 보소, 드소, 갔다 오소, 하는 식으로 존댓말을 쓴다우, 그게 얼마나 듣기 좋다구. 우리 둘이 말을 많이 해. 할 얘기가 왜 없어. 지가 마누라 얘기하면 난 우리 남편 얘기도 하고, 한 얘기 하고 또 해도 싫증이 안 나. 우린 서로 얼마나 열심히 들어준다고, 듣고 또 들어도 재미나니까. 그러다가 누가 먼저 잠들었는지 모르게 잠들지.

「그리움을 위하여」, p.39

배우자의 사별이라는 상처를 안고 외롭게 지내던 두 노인이 만나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지난날의 외로움을 '함께' 치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서로 존댓말을 사용하고 열심히 들어주는 경청의 모습은 대화를 통한 양성평등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들의 결혼생활은 가부장적인 사상에서 벗어나 평등사상에 바탕을 둔 것으로 여성이 억압당하는 기존의 잘못된 성역할의 인습이 재정립되고 있음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보여준다.

> 나는 상전의식을 포기한 대신 자매애를 찾았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도 춥지 않은 남해의 섬, 노란 은행잎이 푸른 잔디 위로 지는 곳, 칠십에도 섹시한 어부가 방금 청정해역에서 낚아 올린 분홍빛 도미를 자랑스럽게 들고 요리 잘하는 어여쁜 아내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오는 풍경이 있는 섬, 그런 섬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에 그리움이 샘물처럼 고인다. 그립다는 것은 축복이다. 그동안 아무것도 그리워하지 않았다. 그릴 것 없이 살았으므로 내 마음이 얼마나 메말랐는지도 느끼지 못했다. 우리 아이들은 내년 여름엔 이모님이 시집간 섬으로 피서를 가자고 지금부터 벼르지만 난 안가고 싶다. 나의 그리움을 위해, 그 대신 택배로 동생이 분홍빛 도미를 부쳐올 날을 기다리고 있겠다.
>
> 「그리움을 위하여」, p.40

‘나’는 그리움을 잊고 살았다고 고백하면서 그리움을 깨지 않기 위해 동생이 있는 사량도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어느 개뼉다귀인지 모를 늙은 뱃사람’, ‘거칠고 단순한 뱃사람’, ‘징그러운 생선’에서 ‘복사꽃잎을 떠올렸다.’, ‘노란 은행잎’, ‘섹시한 어부’, ‘분홍빛 도미’, ‘샘물처럼 고인다’로 변화된 표현으로 비로소 ‘나’는 진정으로 사촌동생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상전의식’이 ‘자매애’로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항상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던 ‘나’는 사촌동생이 있는 섬을 그리워하게 된다. 이런 동생을 통해 아무것도 그리워하지 않았던 의식이 그리움으로, 부정적이었던 삶의 방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되는 것을 볼 때 ‘나’는 현실에 순응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처음에는 사촌동생의 로맨스에 경악하고 부끄럽게 느꼈던 ‘나’는 점차 동생의 주체적인 삶에 대해 심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는 동생이 전남편의 제사를 지내러 가면서 허락을 받은 게 아니라 자신이 결정하여 당당하게 요구했다는 말을 듣고 쾌감을 느꼈다는데서 알 수 있다. 이로서 두 사촌자매간의 대립과 ‘나’의 내면갈등을 ‘나’의 화해로부터 얻어지는 평화로움과 자기발견의 기쁨을 발견하는 모습으로 해결한다. 이를 통해 홀로된 노인들의 외로운 삶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긍정적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는 사촌과의 화해를 모색하는 자매애의 복원으로,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며 동시에 노년 여성의 존재의식 탐구라고 할 수 있다. 이월영[40] 등은 여성간의 자매애는 여성 상호간의 공감의식이라고 하면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불리한 사회·문화의 구조 속에서 그에 대해 수긍하는 자세에서 기인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상호관계 작용은 자신의 소중한 체험으로부터 얻은 지혜를 소통하는 과정에서 여성은 잃어버린 자아와 자신의 내면의 진실, 주체적인 시각을 되찾게 되는 것이다. 작중화자인 '나'와 사촌여동생 두 인물은 정반대의 캐릭터로 설정되어진 대립관계의 인물이다. 정미숙[41] 은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여성은 자본의 논리에 따라 그려졌다고 하였다. 박완서 소설에서 여성은 미·추의 관계로 대비되어 아름다운 여성과 못생긴 여성을 각각 선과 미로 대비하여 늙지도 젊지도 않은 여성의 사랑은 환멸적인 것으로 그려진다고 하였다.

재혼 후 나들이 온 동생의 모습은 행복하고 활기찬 표정이다. 이를 바라보는 나는 비로소 동생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 동생에 대한 '상전의식'과 '우월감'에서 벗어나 자매애를 회복한다.

노년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사촌여동생의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과 그 사랑을 당당하게 지켜가는 모습을 통해 가치관의 변화를 겪게 된다는 점에서 노인의 로맨스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그것은 작가가 전달하고자하는 노년의 관용과 원숙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점은 이전의 작품 『휘청거리는 오후』에서 나타나는 결혼에 대한 물질중심주의 가치관이 변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우희'는 남녀가 동등하다고 믿는 인물로, 민수와 조건 없는 사랑을 시작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삶의 무게에 눌려 물질적인 풍요와 안일만을 목적으로 결혼한 언니의 선택을 이해하고 부러워하게 된다. 이러한 젊은 세대의 물질 중심주의 결혼관에 대해 심각성과 우려를 드러내고 있는데 비해 이 작품의 동생과 새 남편은 조건이나 물질적 가치보다 결혼의 참의미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남녀평등의 모습까지 아울러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40) 이월영, 이희경, 장미영 공저, 『여성문학의 어제와 오늘』, 태학사, 2001.
41) 정미숙,「박완서의 주관적 관계론의 시점」, 『한국 여성소설 연구 입문』, 태학사, 2002.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과거의 회상과 자아성찰

「그 남자네 집」은 단독주택으로 이사한 후배네 집을 방문했던 주인공인 노인 여성이 후배네 집 근처에서 과거 전쟁 상황의 '그 남자네 집'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액자소설이다. 주인공은 '그 남자'가 이사 와서 짐을 풀던 때부터 대학 입학, 전쟁 상황 속에서 데이트를 하던 시절의 극장과 조선 기와집을 회상한다.

> 그 남자를 다시 만난 것은 우리 집에 아녀자만 남고 나서였다. 나는 아이들과 여자를 동격시하는 아녀자란 말이 싫었지만 차차 동의하게 되었다. 전쟁이 휩쓸고 간 후 집안 꼴이 그렇게 되었다. 남자들은 성북경찰서를 거쳐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되었다. 전쟁이 난 지 일 년이 넘었는데도 전선은 서울 북쪽 몇십 리 안에서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었고 피난 못 간 서울 사람들은 가난뱅이들뿐이었다. 다들 가난할 때여서 진짜배기 가난뱅이는 오히려 귀했다. 생업에 종사하는 것은 여자들이었다. 우리 집만 아니라 이 도시에 남은 것은 아녀자뿐인 것 같았다.
>
> 「그 남자네 집」, p.59

주인공은 6.25 전쟁 중에 남자들이 징집되고 아녀자들만 남은 상황에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미군 부대에 취직하게 된다. 실제로 작가는 미8군 PX 부대 초상화부로 근무한 적 있다. 그러므로 이작품은 작가의 체험이 반영된 자전적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이 다른 전쟁체험 소설과 다른 점은 전쟁체험이 가족 간의 이별 등 일반적인 아픔과 상처만 준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들 가난하고 아녀자들이 생업에 종사해야만 하는 전쟁의 피폐함 속에서도 낭만과 문화의 사치를 마음껏 누린 그 남자와의 낭만적 사랑을 그리워하는 모습으로 옛사랑에 대한 추억을 다루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처자식은 두 말 없이 따라나섰겠지만 부모는 달랐다. 왜냐하면 인민군이 후퇴하고 서울이 수복된 동안에 막내가 국군으로 징집됐기 때문이다. 막내가 국군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 집 식구들이 월북자 가족으로 받아야 할 핍박을 많이 줄여준 건 사실이지만 노부모에게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딜레마였다. 결국 노부부는 헤어지는 쪽을 택했다. 아버지는 큰아들네 식구를 따라 북으로 가고 어머니는 남아서 군인 나간 막내아들을 기다리기로 했다. 그런 연유로 그 남자가 넓적다리에 부상을 입고 명예 제대하여 집으로 돌아와 보니 그 큰 집에 늙은 어머니 혼자 달랑 남아 있었다. 그동안에 파파 할머니가 돼 버린 어머니를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기는커녕 무슨 효도를 보려고 자기를 기다렸느냐고 들입다 구박만 했다.

「그 남자네 집」, p.65

그 남자의 큰형은 좌익으로, 인민군이 후퇴할 때 북으로 갔다가 겨울에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 가족을 데려가기 위해 나타났으나 인민군이 후퇴하고, 서울이 수복된 사이 막내가 국군으로 징집되자 월북자 가족이 받는 핍박은 덜 받았지만 노부모에게 참혹하리만치 어렵고 난감한 선택의 기로는 비애를 느끼게 한다. 결국 아버지는 큰아들네 식구를 따라 북을 선택했고 어머니는 남에서 군대 간 막내아들을 기다리기로 한다.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돌아온 아들을 부둥켜 안고 슬퍼하는 노모의 모습과 가족이 생이별을 해야만 하는 비극적 현실은 전쟁의 참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시대상황과 달리 밤잠을 설치며 그를 생각한다.

나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아름다운 얼굴에서 창백하게 일렁이던 카바이드 불빛, 불손한 것도 같고 우울한 것도 같은 섬세한 표정, 두툼한 파카를 통해서도 충분히 느껴지는 단단한 몸매, 나는 내 몸에 위험한 바람이 들었다는 걸 알아차렸다. 피차 동정 같은 건 하지 않았지만 닮은 불운을 관통하는 운명의 울림 같은 걸 감지한 건 아니었을까. (중략) 그 남자는 거의 매일같이 부대 앞에서 나를 기다렸다. 미군부대의 잡역부들은 일자무식으로부터 대학을 나온 사람까지 다양했지만 다들 어딘지 켕기는 데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특히 병역기피자가 많았다. (중략) 그가 멋있어 보일수록 나도 예뻐지고 싶었다. 나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내 몸에 물이 오르는 걸 느꼈다. 그는 나를 구슬 같다고 했다. 애인한테 보다는 막내 여동생한테나 어울릴 찬사였다. 성에 차지 않았지만 나도 곧 그 말을 좋아하게 되었다. 구슬 같은 눈동자, 구슬 같은 눈물, 구슬 같은 이슬, 구슬 같은 물결..... 어디다 그걸 붙여도 그 말은 빛났다.그 해 겨울은 내 생애의 구슬 같은 겨울이었다.

「그 남자네 집」, pp.66-67

상이군인이 되어서 돌아온 그 남자의 모습을 '아름다운 얼굴', '섬세한 표정', '단단한 몸매'로 묘사하며 사랑의 감정을 나타냈다. 그 남자는 '나'를 위해 매일같이 부대 앞에서 기다렸다. 시민들이 거의 피난한 상황이라 전쟁으로 파괴된 거리는 한산하였지만 그 당시 겨울을 '생의 구슬' 같았다고 서술하며 사랑의 설레는 감정을 표현하였다. 분명 가족과 사별하고 가정 형편상 피난도 가지 못하는 어려운 처지임에도 기존의 소설 「엄마의 말뚝」,「나목」,「그 해 겨울은 따뜻했네」처럼 전쟁의 비극을 묘사하기 보다는 지난날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회상하고 있다.

그는 시를 좋아할 뿐 아니라 외우고 있는 시가 많았다. 가로등 없는 골목길을 오 리를 십 리, 이십 리로 늘여서 걸으면서, 또는 삼선교의 포장마찻집의 새파랗고도 어둑사근한 카바이드 불빛이 무대조명처럼 절묘하게 투영된 자리에서 그는 나직하고도 그윽하게 정지용·한하운의 시를 암송하곤 했다. 그는 그 밖에도 많은 시인의 시를 외우고 있었지만 내가 누구의 시라는 걸 알고 들은 건 그 두 시인이 고작이었다. 포장마찻집에서는 딴 손님이 없을 때에만 그런 객쩍은 짓을 했기 때문에 주인 남자도 잠자코 귀를 기울였다. 다 듣고는 분수에 넘치는 사치를 한 것 같다고 고마워했다. 나에겐 그 소리가 박수보다 더 적절한 찬사로 들렸다. 우리에게 시가 사치라면 우리가 누린 물질의 사치는 시가 아니었을까. 그 암울하고 극빈하던 흉흉한 전시를 견디게 한 것도 내핍도 원한도 이념도 아니고 사치였다. 시였다.

「그 남자네 집」, pp.71-72

그가 시를 좋아하고 많은 시를 외울 뿐만 아니라 가로등 없는 긴 골목을 걸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면서도 시를 암송하는 모습을 '나직'하고도 '그윽'하다고 묘사한 것은 그에 대한 그리움의 표현이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에서 가정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나'와 상이군인인 '그 남자'와 사랑을 '사치'라고 말한다. 화려한 장소에서 분에 넘치는 호화 취미를 즐기고, 포장마찻집에서 시를 암송하고, 그 남자의 집에서 클래식을 듣는 모든 것들이 분수에 넘치는 '사치'인 것이다. 포장마찻집 주인이 그 남자가 암송하는 시를 듣고 '분수에 넘치는 사치'라고 한 소박한 고마움으로 표현한 것도 암울하고 극빈하던 흉흉한 전시 상황을 견딜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 그는 또 내가 이름을 알 리 없는 외국 테너의 기름진 미성도 애무하듯이 가만가만 관능적인 허밍을 넣으면서 들었다. 솔이 허밍인지 허밍이 솔인지 잘 구별이 안 됐다. 촉각과 청각이 서로 녹아들면서 아슬아슬한 도취의 순간을 만들어냈다. (중략) 그 가사에다 그가 허밍을 넣는 걸 듣고 있으면 나는 온몸에 솜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다. 그 시절부터 우리는 얼마나 멀리 와 있나. 여긴 어딘가. 그건 일종의 위기의식이었다. 5월이 되자 사랑마당에서 온갖 꽃들이 피어났다. 그렇게 여러 가지 꽃나무가 있는 줄은 몰랐다. 향기 짙은 흰 라일락을 비롯해서 보랏빛 아이리스, 불꽃같은 연산홍, 간드러지게 요염한 유도화, 홍등가의 등불 같은 석류꽃, 그런 것들이 불온한 열정-화냥기처럼 걷잡을 수 없이 분출했다. (중략) 그런 꽃들을 분출시킨 참을 수 없는 힘은 남아돌아 주춧돌과 문짝까지 흔들어대는 듯 오래된 조선 기와집이 표류하는 배처럼 출렁였다. 우리는 서로 부둥켜안고 싶을 만큼 아슬아슬한 위기의식을 느꼈다. 돈 안 드는 사치는 이렇게 위험했다.
>
> 「그 남자네 집」, pp73-74

그 남자는 전쟁에서 상이군인이 되어 돌아왔다.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노모에게는 충분한 효도였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가혹하게 착취하여 돈을 얻어낸다. 노모가 돈을 안주면 부산 가서 누나한테 달랠 거라는 공갈을 쳤고 노모는 아들이 시집간 딸에게 폐가 될까봐 귀한 골동품이라도 내다 팔아 돈을 마련해 준다. 딸은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동생을 부산으로 부르곤 했는데 '나'는 그 남자와 헤어져 있는 시간이 외롭고 쓸쓸하여 흐느끼곤 한다. 그 공허함을 견디라고 한다면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절박'하고도 '열정적'으로 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남자를 기다린다. 그러면서도 그 남자와의 사랑을 '아슬아슬한 도취의 순간', '서로 부둥켜안고 싶을 만큼'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위기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들의 사랑은 포장마차나 극장, 안감 냇가에서 이루어졌다. '그 남자의 집'은 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었다. 이 공간은 휴식과 평화의 공간인 동시에 문화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이 작품에서 '집'은 인물들이 구체적 삶을 체험하는 공간인 동시에 되돌아가고 싶은 고향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42]

> 휴전이 되고 집에서 결혼을 재촉했다. 나는 선을 보고 조건도 보고 마땅한 남자를 만나 약혼을 하고 청첩장을 찍었다. 마치 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는 것처럼 나에게 그건 당연한 순서였다. 그 남자에게는 청첩장을 건네면서 그 사실을 처음으로 알렸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나서 별안간 격렬하게 흐느껴 울었다.
>
> 「그 남자네 집」, p.74

집에서 결혼을 재촉하자 '나'는 '조건도 보고 마땅한 남자'를 만나 약혼함으로써 사랑보다는 남성에게 의존해서 안정된 삶을 살려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인다. 주체적인 삶이 아닌 본능적인 삶에 안주하려는 전근대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인다. 후에 그 남자의 집을 찾아갔지만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다. 휴전 후 연탄불의 사용은 급속도로 확산되어 결혼 생활이 '연탄불과의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연탄불의 냄새는 지겨워야 하지만 그 남자의 집 근처 동네를 돌면서 맡은 연탄불 냄새는 카바이드 냄새가 섞인 그리운 냄새였고 그 냄새에 이끌린다. 그 집이 주인을 잘 만났다는 사실에 대한 기쁨, '접근을 거부하는 은둔자의 자세'라는 비유, '그 집은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다. 그 집은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었을 뿐 아니라 정원도 잘 보존되어 있는 듯했다', '나에게 그는 영원히 아름다운 청년', '나는 그에게 구슬 같은 처녀'라는 표현에서 그 남자에 대한

42) 오승영, 「박완서 친절한 복희씨의 갈등구조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리움을 짐작해 볼 수 있다.

> 거기서 보여준 건 새들이 짝을 구하는 방법이었는데, 주로 수컷이 노래로 몸짓으로 깃털로 암컷의 환심을 사려고 온갖 노력을 다한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저 그렇고, 가장 흥미 있었던 것은 자기가 지어놓은 집으로 암컷의 환심을 사려는 새였다. 그런 새가 있다는 건 처음 알았다. 수컷은 청청한 잎이 달린 단단한 가지를 물어다가 견고하고 네모난 집을 짓고, 드나들 수 있는 홍예문도 내고, 빨갛고 노란 꽃가지를 물어다가 실내 장식까지 하는 것이었다. 암놈은 요기조기 집 구경을 하고 나서 그중 가장 마음에 드는 집을 골라잡기만 하면 짝짓기가 이루어진다.
>
> 그래, 그때 난 새대가리였구나. 그게 내가 벼락치듯 깨달은 정답이었다. 나는 작아도 좋으니 하자 없이 탄탄하고 안전한 집에서 알콩달콩 새끼 까고 살고 싶었다. 그의 집도 우리 집도 사방이 비새고 금 가 조만간 무너져 내릴 집이었다. 도저히 새끼를 깔 수 없는 만신창이의 집, 아직 태어나지 않은 내 새끼를 위해 그런 집은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 「그 남자네 집」, pp.76-77

‘나’는 결혼 후에도 그 남자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음을 느낀다. ‘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남자와의 플라토닉 사랑이 아닌 새끼를 까서 알콩달콩 살 수 있는 집이었다. 그러나 그 남자네 집은 도저히 그럴 수 없었기에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작아도 좋으니 안정적인 가정에서 새끼를 낳고 살고 싶었다는 서술을 통해 ‘나’는 로맨틱한 여주인공 같은 낭만적 여성이 아닌 현실적인 여성으로, 서로 진하게 사랑을 나누는 젊은이들과 구별된다.

옛일을 그리워하고 있는 ‘나’는 현실적인 가치를 선택하는 현실적 인물이라면 ‘그 남자’는 현실보다는 사랑의 감정에 비중을 두는 감성적 인물이다.

화자는 젊은 날의 ‘서로 부둥켜안고 싶을 만큼 아슬아슬’했던 과거의 사랑을 회상하면서 그 시절 플라토닉 사랑을 추구했던 것은 사랑의 순결함이나 숭고함이 아니라 임신의 공포 때문이었음을 고백한다. 그 남자와의 진한 애무도 한 번 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노년의 에로스적 사랑을 지나온 시간에 대한 기억의 형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카페에 앉아 서로 진하게 애무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젊은 날의 사랑을 '외설스러운 순결주의'라고 비난하는 것 같이 느낀다. 이것은 지난날에 대한 그리움과 자기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체험 소설은 전쟁 중이거나 전후의 사회상을 다룬 소설로 대부분 그 자체의 비참함이나 상실의 체험 등 전쟁의 비극이 드러나 있다.

「부처님 근처」는 전쟁의 폭력성으로 가족의 해체되는 비극을 보여준다. 가족의 죽음 앞에서 곡소리조차 마음대로 못하는 비참한 상황으로 전쟁의 폭력성을 생생하게 고발하고 있다. 전쟁체험 소설은 『나목』,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을까』,「엄마의 말뚝」, 「겨울나들이」,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등 전쟁의 비극성을 그린 작품이 대부분이다. 작가는 이 단편소설을 확대하여 장편소설 『그 남자네 집』을 쓰면서 힘들고 가난했던 시절을 견뎌내게 한 '문학에 바치는 헌사'라고 하였다. 실재 경험이든 아니든 전쟁체험 속의 사랑 이야기는 다른 전쟁체험 소설들과 구별된다.

3. 정체성 회복과 자아의 발견

노년은 살아온 날이 살아갈 날보다 많은 시기이다. 이에 지금 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 성찰하는 모습을 보인 작품들이 많다. 젊은 날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지금에야 깨닫게 되는 지난날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 반성한다. 또한 분노와 증오를 복수로 대항하기보다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는 관용의 자세로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가치관이 변화됨을 보여주는 작품도 많다.

「후남아 밥 먹어라」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후남'이라는 이름은 아들을 낳고 싶다는 욕망으로 붙여진 이름으로 한 인간의 개인적 존재 가치보다 남아선호의 강한 인식만 부각된다.

> 부모의 등골이 빠진 등록금으로 다니는 삼류대학은 금의(錦衣)가 아니라 남루였다. 남루는 교복까지 언니 것을 물려입어야 했던 고교시절로 끝내고 싶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래도 낙방은 낙방이니까 체면상 실의에 빠져 있는 그녀에게 어머니가 넌지시 고맙다. 네가 효녀다라고만 속삭이지 않았으면 머나먼 미국땅으로 시집 같은 거 안 갔을지도 모른다. 어머니가 그녀에게 비굴하고도 은근한 목소리로 고마워했을 때 그녀는 있지도 않은 희생정신을 들킨 것처럼 느꼈고 그 느낌이 여간 고약한 게 아니었다. 누가 누구를 위해 희생한단 말인가. 희생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들한테 속아서 희생당한 것을 빨리 만회하고 싶었다.

「후남아 밥 먹어라」, p.114

후남은 가난한 집 셋째 딸로 여러 가지 가정형편을 이유로 자신만 공부를 시켜주지 않는 어머니에 대해 서운함과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셋째 딸로 자신의 고유한 존재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자란다. 언니 두 명과 남동생 두 명의 가족관계에서 '후남'이라는 이름은 '나'의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한 이름이 아니라 남동생을 위한 이름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는 은근한 말로 '딸'의 희생을 정당화하고 후남은 그런 어머니에게 섭섭함을 느낀다. 그녀는 학교를 포기하고 미국으로 출가하게 되자 어머니는 처음으로 '고맙다'고 말한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후남이에게 처음으로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현한 것이다.

대학을 나와 판판이 노는 큰언니하고 재학 중인 작은 언니까지도 그녀가 재미교포한테 시집가게 된 것을 집안에 신데렐라가 난 것처럼 질시할 정도였으니까. 피붙이들의 착각과 선망 때문에 신랑쪽 하객이 거의 없는 결혼식이 섭섭한 줄도 몰랐다. 헹가래질을 당하는 것만큼의 불안감도 없이 공중에 붕 뜬 것 같은 무중력감이 그냥 즐겁기만 했다. 신랑은 매우 미안해 하면서 신혼여행은 생략하고 곧장 미국으로 데려 가고 싶다고 했다. 친정붙이 중 누구도 그 사실을 섭섭하게 여기지 않았다. 신랑 신부를 비행장에서 전송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정신없이 들떠 있었다. 그건 여태까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분상승의 황홀경이었다.

「후남아 밥 먹어라」, pp115-116

위 인용문에는 후남이가 미국 이민자와 결혼하게 됨으로써 가족들이 '집안에 신데렐라가 난 것처럼', '신분상승의 활홀경'을 경험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것은 남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의해 여성의 지위가 결정되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아직도 남성중심의 전근대적 사고에 머물러 있음을 드러내며 남성에 의존적인 인물상을 그려내고 있다. 신혼여행도 생략하고 머나먼 미국으로 떠날 때에도 섭섭해 하기보다 비행장에서 전송하는 사실에 들떠 있을 뿐 헹가레질 당한 공중에 뜬 사람이 '착지하기 전에 사람들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년의 불안감은 아무도 생각해주지 않는다.

남편의 성을 따라야 하는 낯선 이국에서의 결혼제도 역시 '나'의 존재성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을 키웠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고 소외감을 가중시켰다.

> 그녀가 두발 딛고 살아야 할 땅에 그녀의 피붙이는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다. 공항이 떠들썩하게 마중 나온 사람들은 다들 신랑과는 사촌 이내의 친척들이었다. 그건 그녀에게도 해당되는 촌수였지만 피붙이는 아니었다. 피붙이끼리의 관계망 속으로 복귀한 신랑은 한국에서 볼 때와는 달리 편안하고도 의젓해 보였다. 그녀는 그런 신랑이 의지가 되기보다는 달랑 외톨이라는 소외감만 더했다.
>
> 「후남아 밥 먹어라」, p.116

자신의 존재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미국에서 생필품을 부지런히 한국의 가족들에게 보냈고, 한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더 이상 경제적 지원을 할 필요가 없게 되면서 우울증을 앓게 된 것도 자신의 존재성을 확인시켜 주던 유일한 방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나'는 평생을 두고 자신의 존재성을 확인하고 인정받고 싶어했다. 그러므로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나'를 그리워하며 '딸막내'라고 부르며 찾는다는 말을 듣고 원망과 격정이 북받쳐 온 이유는 어머니가 '나'의 고유한 존재성을 인정하는 최초의 호명이었기 때문이다.

.

> "후남아 밥 먹어라, 후남아 밥 먹어라"
>
> 어머니가 저만치 짧게 커트한 백발을 휘날리며 그녀를 부르며 달려오고 있었다. 아아 저 소리. 생전 녹슬 것 같지 않게 새되고 억척스러운 저 목소리. 그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는 그 목소리를 얼마나 지겨워했던가. 밖에서 놀이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나 동무 집에서 같이 숙제를 하고 있을 때도 온 동네를 악을 악을 쓰면서 찾아다니는 저 목소리가 들리면 그녀는 어디론지 숨고 싶었다. 왜 그냥 이름만 불러도 되는 것을 꼭 밥 먹어라는 붙이는지. 하긴 끼니때 아니면 찾아다니지도 않았으니까 그 소리가 꼭 끼니나 챙겨 먹이면 할 도리 다했다는 소리처럼 들렸다.

「후남아 밥 먹어라」, p.138

인용문에서 주인공은 모성애의 인식하고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다. '밥'은 아들이 아닌 딸을 위한 어머니의 사랑이며 후남은 어머니의 반복적인 행위에 의해 존재감을 확인한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유일하게 알아보는 대상은 아들이 아닌 딸 후남이다. 이는 소극적이나마 남아선호사상에 대한 거부의식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후남아, 밥 먹어라'는 소리를 들으며 후남이는 어머니에 대한 그동안의 원망과 섭섭함을 극복하고 화해하게 된다. 그리고 어머니의 밥 짓는 냄새를 맡으며 어머니와 진정으로 소통하게 된다.

박완서의 소설에는 아들에 대해 과도하게 집착하는 어머니와 그런 어머니의 편애로 인해 상처받은 딸의 모습이 나타난다. 동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아직도 끝나지 않는 음모 3」도 남녀차별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의 후남은 여자중견 사원 입사시험에 합격한 최초의 여직원으로 결혼하면 직장을 그만두는 분위기가 조성된 시대의 직장인이었다. 아들의 혈통만으로 대를 잇는 것은 아니라면서 아들 못지않게 당당한 독립적 인간으로 키웠던 어머니가 결혼을 위해 일을 포기하라는 말에서 배신을 느낀다. 이 또한 남아선호사상을 다룬 작품으로 결혼과 동시에 일을 포기해야하는 억울함. 아들을 낳아야만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모순과 부당함을 드러내어 가부장적 인습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남아선호사상'은 박완서의 작품 전반에 걸쳐 이어져 내려온 한계를 보이는데 아래 인용문에서는 그 극복의 모습이 잘 나타난다.

투박하기 이를 데 없는 어머니가 어쩌다 딸에게 애정 표현을 할 때도, 밑으로 사내동생을 줄줄이 둘이나 본 신통한 내 새끼, 하는 식이었다. 그럼 난 오직 사내동생을 보기 위해 태어났단 말인가. 처음부터 자식의 고유한 존재가치를 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정하지 않은 이름을 지은 부모, 고유한 존재가치 없이 태어난 인생, 둘 다 싫었다.

"후남아 밥 먹어라, 후남아 밥 먹어라."

백발의 어머니가 젊고 힘찬 목소리로 악을 악을 쓰고 있었다. 하여튼 우리 엄마 밥 좋아하는 건 알아줘야 해. 아들자식을 원할 때도 그런 마음이었겠지만 딸들 앞에서 아들을 특별대우 할 때도 변명처럼 말하곤 했다. 야아는 제삿밥 떠놓을 애니까라고 아아 가엾은 우리 엄마, 그녀는 달려오는 엄마를 한길 가운데서 맞이했다.

「후남아 밥 먹어라」, pp.139-140

딸인 '후남'은 어머니의 고통을 경험하고 이해함으로써 화해하고 모녀관계를 회복하게 된다. 한국 어머니들에게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남아선호사상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양성평등의 시대적 요구로 위기를 맞게 되었고, 이에 따라 여성이 정체성을 인식하게 된 것은 자연스런 시대의 반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자식에게 밥을 먹이려는 어머니의 무의식은 그동안 개체적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 상처를 깨끗이 치유해 준다. '나'는 어머니의 밥 냄새를 맡으며 자신이 '몇 생 동안 찾아 헤맨 것이 바로 그 냄새라는 것을 깨닫는다. '딸막내'에게 밥을 먹이려는 어머니의 정성과 '딸막내' 라고 부르면서 '나'를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사랑은 밥 냄새를 통해 '나'의 존재성이 눈앞에 실재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임을 역설한다.

후남이는 알맞게 부숭부숭하고 따끈한 아랫목에 편안히 다리 뻗고 누웠다. 그리고 평생 움켜쥐고 있던 세월을 스르르 놓았다. 밥 뜸 드는 냄새와 연기 냄새와 흙냄새가 어우러진 기막힌 냄새가 콧구멍뿐 아니라 온몸의 갈라진 틈새로 쾌적하게 스며들었다. 잠깐만, 어머니가 후남아 밥 먹어라, 다시 한 번 불러줄 때까지 잠깐만 눈 붙이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지리라.

「후남아 밥 먹어라」, p.141

후남은 평생 움켜쥐고 있던 세월을 내려놓고 따끈한 아랫목에 편안히 다리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뻗고 누워 어머니의 '밥'을 기다리면서 드디어 오랜 방황에서 회귀한다. 그녀에게 있어 '밥'은 치매를 넘어선 어머니의 사랑이며, 어머니는 고향 같은 존재이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여 섭섭하지만 '밥 먹어라'란 소리와 '모든 것이 다 좋아지리라'는 것은 자신이 겪은 설움, 스트레스, 피해의식과 어머니의 아픔 등 현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동안의 갈등이 해소됨을 의미한다.

노인의 치매와 관련한 「환각의 나비」에서는 일찍 과부가 되어 홀로 자식을 키웠던 노인이 등장한다. 이 노인은 치매 때문에 집을 나가게 되는데, 치매에 걸려 절망하는 것은 가족들이고 정작 본인은 자유롭고 당당하다. 살아온 무게를 털어버리고 자유와 평안을 얻은 것이다. 기억을 상실한 상태에서 삶의 무게와 세월의 잔재로부터 자유로운 평화와 안식을 얻은 것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노인들의 평안은 기억 상실증에 걸려야 가능해지는 아이러니[43]를 보여주지만 노인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거저나 마찬가지」에서 '나' 김영숙은 대학만 가면 돈벌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당시는 중고생 과외 열풍이 극에 달한 때라 으레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류에 들지 못한 이유로 그런 경쟁상황에서 절대 불리한 조건이란 걸 깨닫는다. 좋은 대학에 다니는 동창들은 좋은 보수를 선불로 흥정해서 받고 자신은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보수조차 성적이 오르면 후불로 주겠다는 전제가 많았다.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등록금 면제를 조건으로 이류로 분류된 대학에 갔지만 이마저도 졸업을 못했다. 등록금 외에도 용돈, 잠자리, 먹을 것 등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려운 가정형편을 딱하게 여긴 먼 친척 아저씨가 그의 의류공장에 와서 일해 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에 중퇴하고 수출하는 의류를 납품하는 봉제공장에 취직했다. 아저씨는 노동시간과 임금문제로 공원들과 마찰이 생길 때 '내'가 첩자가 되어주기를 바랐다. 그 즈음 이력서에 '나'와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선배언니가 견습공으로 들어와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선배언니는 노동운동을 위해 위장 취업한 '먹물냄새' 나는 여성으로 열등감을 가진 '나'에게는 우상 같은 존재이다. 나는 아저씨보다 그 선배 언니편이 되어 가고 있었

43) 마미영, 「박완서 소설의 여성인물과 근대화 양상」,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다. 위장취업으로 들어온 언니는 너 정도가 알아들을 수 있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문장을 써야하는데 잘 안 된다면서 '나'에게 리라이팅을 부탁했고, 그것은 그녀를 기대 이상으로 만족시켰다.

"내가 작사가라면 너는 작곡가야. 우리 외할아버지는 말끝마다 한때 항일 투사였다는 걸 자랑하시는 분인데 말년엔 보잘 것 없어져서 술만 한 잔 하셨다 하면 꼭 일본 군가를 부르셨어. 위로 받고 싶은 불쌍한 표정으로 가사를 한 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는 나도 그 곡조를 들으면 잠자던 피가 끓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한번 죽을 목숨이라는 허무감 같기도 한 묘한 기분에 사로잡히게 되더라. 틀림없이 천황을 위한 충성심을 고취하고 천황을 위해 용맹스럽게 전사하는 걸 최고의 가치로 찬양하는 가사일 테니까 그런 달착지근한 감상은 아마 곡조에서 비롯된 것이었을 거야. 자기 죽음에 도취해서 황홀하게 죽게 만드는 힘은 결코 가사에 있지 않고 곡조에 있었던 거지. 선동 당한다는 걸 잊고 스스로 도취하게 만드는 힘은 음악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네 글솜씨에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내가 말하고 싶은 취지는 그대로 있는데 네가 조금만 손을 봐주면 감동이 생기거든. 그거 내가 발굴한 거니까 딴 데 함부로 써먹으면 안 된다. 알았지?"

「거저나 마찬가지」, pp.153-154

언니가 민중운동을 하기 위한 선언문의 윤색을 부탁하기 시작하면서 '나'의 존재감은 높아진다. '나'의 윤문은 민중들을 선동하는 감정이 생기게 만드는 것이었고 나의 실력은 선배언니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했다. 선배언니는 모두가 일한 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꿈꾸며 위장취업을 한 운동권 학생이었다. 운동권 때문에 노조가 생길까봐 두려워 공원의 동정을 염탐해주는 자기사람으로 만들려고 취직시킨 아저씨의 생각과는 달리 '나'는 선배언니를 위장취업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선배언니의 편이 되어 그녀를 도와준다. 그러나 선배언니의 이상은 자본주의의 논리에 좌초되고 세상과 타협하는 전형적인 속물형 인간으로 변해간다. 민중에 대한 사랑은 기득권 세력에 합류하기 위한 합리화에 불과하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남에게 이용만 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나도 졸업은 못했지만 영어는 좀 하는 편이어서 윤문뿐 아니라 오역도 발견해서 슬그머니 고쳐놓곤 했다. 그가 얼마를 받고 그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돈은 약소했다. 팁을 주듯이 거만하게 굴기도 하고 슬그머니 안 주기도 하였다. 그래도 노는 것보다는 나았고 유령회사 팀장보다는 보람도 있었다. 번역자가 내 이름으로 돼 있지는 않지만 내 글솜씨가 분명한 글이 아름다운 삽화와 함께 미려한 책이 되어 서점에 나온 걸 어루만져보는 맛은 섭섭하고도 대견스러웠다.

「거저나 마찬가지」, pp.162-163

선배언니는 '나'에게 글의 윤문이나 대행을 맡기는 등 많은 일을 시키면서도 적은 보수만을 건네주며 '나'가 쓴 글을 자신의 작품으로 출간한다. 선배언니는 노동운동을 하는 애인의 뒷바라지를 하던 긍정적인 인물이었지만 민주화가 되고 시대가 바뀌자 선배언니와 남편은 민주화 경력을 이용하여 권력과 물욕을 가진 인물로 변모한다. 선배언니에게 학생운동은 진정한 민중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 성공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다. 선배언니는 파출부로 일하며 자신을 키운 어머니를 보며 느꼈던 세상에 대한 적개심에서 비롯된 상처를 가지고 있다. 부모가 소유한 경제, 문화 사회 자본은 자녀에게도 대물림되어 재생산된다는 현실이 선배언니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민중을 위한 투쟁의 대열에 섰지만 그것은 가진 자에 대한 분노였으며, 자신의 처지에 대한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이었기에 순수함을 잃고 자본력과 권력에 영합한 속물로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편, 나는 노동자들의 입장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기남'과 동거하게 된다. 노동자 출신의 '기남'은 여공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에서 신속하게 대처하는 등 박애정신이 투철한 인물이다. 기남의 집은 작고 누추했지만 노동자들의 쉼터로 이용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글을 쓸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이 필요했다. 그 무렵 언니한테서 다시 연락이 와서 자기가 번역한 걸 윤문해 달라고 한다 이런 언니의 부탁이 잦아지면서 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언니에게 사정을 얘기한다. 언니는 시골에 별장으로 쓰던 집을 그동안 모아온 적금 오백만 원을 받고 집필실로 쓰라고 빌려준다. 선배언니는 사회적 위치가 격상했음에도 돈을 들이지 않고 '나'를 거저 부려먹으려는 것을 통해 지식인의 속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적 모습을 보여준다.

> 언니가 점점 더 욕심을 내기 시작했다. 먹을 만큼 이상을 가져가고 싶어 했다. 먹어본 사람은 다들 사 먹는 것보다 맛도 있고 안심이 된다고 칭찬이 자자하다면서 내가 가꾸는 꽃밭까지 채소밭을 만들었으면 하는 눈치였다. 그뿐이 아니었다. 사람들을 데려오기 시작했다. 데려와서는 밥만 있으면 된다고 밥하고 상추쌈하고 고추장만 있으면 된다고, 나한테 밥을 시키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내 눈치를 보면서 누구냐고 저 사람을 저렇게 부려도 되냐고 물으면 괜찮다고 우리 집을 거저나 마찬가지로 빌려 쓰는 사람이라고 말하곤 했다. 처음엔 전세 든 사람이라고 했다가 이런 집은 전세가 얼마쯤 되냐고 물으면 전세랄 것도 없어 거저나 마찬가지로 쓰게 한 거니까, 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전세 든 사람에게 이렇게 일을 시켜도 되냐고 묻는 이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괜찮아, 괜찮다니까, 거저나 마찬가지로 차지하고 있는 집이니까. 나는 언니가 뻔질나게 데려오는 사람들 때문에 거저나 마찬가지란 소리도 그만큼 자주 듣게 되었고, 나도 모르게 그 말에 길들게 되었다.
>
> 「거저나 마찬가지」, pp.175-176

'나'는 시골집을 정리하여 꽃을 심고 유기농 채소를 키우며 주변을 정리한다. 유기농 채소는 안심이 된다,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하다는 등의 말로 부추기며 언니는 점점 욕심을 내고 남편과 아는 사람들까지 드나들게 하면서 '나'를 부려먹는다. 이렇게 일을 시켜도 되느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거저나 마찬가지'로 집을 빌려주었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이 데리고 온 지인들까지 나를 부릴 수 있도록 한다. 나를 전세입주자가 아닌 별장지기나 파출부로 전락시키고 '나'가 느끼는 '거저나 마찬가지'는 밑도 끝도 없이 이어진다. 차츰 '거저나 마찬가지'의 함정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거저나 마찬가지' 를 빌미로 한 선배언니의 '상전의식'이나 자신의 '체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모순된 현실 세계를 자각하게 된다.

> 나는 비로소 '거저나 마찬가지'를 심각하게 의심하기 시작했다. 거저면 거저고 아니면 아니지 마찬가지란 무엇일까. (중략) 없는 사람들 살기는 날로 팍팍해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는데 언니네는 부부가 함께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예전에 같이 고생하던 동지들이 다 잘돼서 언니 남편도 꽤 높은 공직에 등용됐고 언니도 여성과 소외 계층을 대변하는 시민단체를 주도하면서 여기저기 매스컴에도 수월찮게 오르내리고 있었다. 언니 이름으로 글이 나가게 되면서 나한테 윤문을 부탁하는 일도 없어졌다.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내 문장은 논리가 빈약하고 너무 감성에 치우쳐 칼럼보다는 자서전 대필에나 알맞을 것 같아 알아보는 중이라고 했다.

「거저나 마찬가지」, pp.177-178

위장취업자였던 언니 남편은 높은 공직에 등용되고 언니는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시민단체의 대표자로 메스컴에 오르내리는 인물이 된다. 그리고 마침내 '나'의 문장은 논리적으로 빈약하다고 폄하하기 시작했다. 작가는 '언니'라는 인물을 통해 민중을 위해 사회적 정의를 외치던 일부 위장취업자들의 허위와 이중성을 비판하고 있다.

그녀는 인간관계 속의 허위의식을 걷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며 기남과의 성관계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된다. 기남은 아이가 자신들처럼 '못난 부모'를 만나는 것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며 아기 갖기를 거부하지만 그녀는 기남의 생각과는 다르다. 아이를 배제하고 성관계만 갖는 것 또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저 근성'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성관계 역시 '거저나 마찬가지'로 하는 것에 대한 그녀의 저항 심리를 드러낸 것이다. 그녀는 '거저나 마찬가지'인 관계에서 벗어나 아이를 낳아 키우겠다는 의지를 다진다.

이 작품에서 비판의 대상은 선배언니와 기남까지 포함된다. 선배언니는 '거저나 마찬가지'라는 말로 '나'를 전세입주자가 아닌 별장지기와 파출부로 부리는 상전의 모습을 보인다. 그녀는 지난날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를 위해 일했던 정의로운 마음을 잃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인물로 전락한다. '나'와 기남도 '거저 근성'을 당연하게 체념적으로 받아들이는 면에서 비판의 대상이지만 '나'는 '거저 근성'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삶으로의 전환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면모를 보인다.

이 소설에서 '언니'는 '나'의 존재가치를 하락시키는 인물이라면 '기남'은 착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고 성실한 성품으로 낮은 신분이기는 하지만 '나'로 하여금 사랑의 감정을 촉발시키는 긍정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거저 얻기를 바라는 근성을 버리고 어떡하든 당당히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결심한다.

> 사람의 의지로 선택할 수 없이 저절로 돼가는 거면 자연스러운 게 아닐까 우리는 아이 핑계로라도 달라져야 해. 어떡하든지 달라지고 싶어. 거저는 사절이야. 우리 거저 근성부터 고치자.
>
> 「거저나 마찬가지」, p.181

'거저나 마찬가지'는 '거저'가 아닌 것이다. 그렇다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것도 아닌, 심리적으로는 두 사람 모두에게 애매모호한 관념으로 작용하는 말이다, 선배언니의 행동을 통해 나는 어정쩡한 관계인 '기남'과의 관계를 재고한다. 착하고 성실하지만 결혼을 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기남'과 '나'는 지금껏 '조강지처나 마찬가지'인 관계였던 것이다. 앞으로는 주체적이고 당당하게 살 것임을 기남에게 행동으로 보여준다. 나이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하지 못하지만 아이를 갖겠다는 희망을 통해 '기남'과의 관계도 바꿀 것이고, 앞으로의 삶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암시한다. 위선, 이중성, 허위 등 부조리와 모순투성인 부정적 양상이 존재하는 사회지만 '나'는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한다. 일상의 부당함과 부도덕함을 당연하게 체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각종 만연된 부조리를 아무런 비판 없이 수용하는 태도에서 벗어나려는 주인공의 이러한 시도는 경험을 통해 획득한 가치관이며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확대이다.

공간적 배경이 비슷한 「도둑맞은 가난」[44]에서는 여공이 공단에서 같이 일하는 상훈을 사랑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나'는 방값을 아끼기 위해 상훈에게 같이 살자고 제안하지만 사실은 상훈을 사랑하고 있다. '나'는 언젠가 상훈이 사랑한다며 반지를 가져와 청혼을 해 줄 것을 꿈꾸면서 가난을 견뎌내지만 상훈은 사라져 버린다. '상훈'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던 어느 날 그는 대학 배지를

44) 박완서 「도둑맞은 가난」,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문학동네, 200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단 고급스런 옷을 입고 와서 자신은 가난을 경험하기 위해 공장에 다녔으며 부잣집 아들이라고 말한다. 과거 '나'는 아버지의 회사가 망하자 인형 공장에 취업한다. 가족들이 자신처럼 강한 의지의 생활력을 본받아 함께 살기를 소망했지만 그들은 모두 자살하고 만다. 그들이 거부한 가난을 동반하는 '나'는 부자들이 가난을 장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 절망한다. 여기에서 작가는 일반적으로 기피하는 가난까지 도둑질하는 부자들의 허세와 허위를 풍자하여 비판하고 있다. 이에 비해 「거저나 마찬가지」에서는 거저근성을 버리는 적극적 태도에서 인물의 주체성과 자아 찾기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지금까지 화해와 소통의 가치를 지향한 작품,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자기성찰의 모습을 그린 작품, 정체성의 회복과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에서의 주체성을 찾는 작품에 나타난 인물의 특성을 분석하고 주제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그리움을 위하여」에서 보여주는 노년의 재혼은 다른 작품과는 달리 외로움이나 생계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재혼한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거저나 마찬가지」를 제외하고는 노인인 여성이 화자로 등장하여 이전의 작품들과 비교해 볼 때 결혼관도 물질적 가치관에서 진정한 사랑과 남녀평등의 결혼관으로 변화하였고, 전쟁체험의 자전적 소설 「그 남자네 집」에서도 전쟁의 비참함이나 폭력성에 무게를 두기보다 옛사랑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아성찰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남녀불평등의 사회구조 속에서 늘 피해당하고 소외되었으나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화해와 소통으로 이어지는 가족 간의 화합 등 모든 면에서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더욱 원숙해진 모습을 보이는 인물인 노년의 여성화자들의 성격과 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Ⅲ. 관용과 지혜로움의 노년 인물

노년에 대한 인식을 주제로 창작된 노인 소설은 노인을 바라보는 인식의 문제와 자식들과의 불화 등의 문제를 주로 다루며 이를 통해 노인들의 소외되고 위기에 처한 삶을 제시한다. 핵가족화 된 현대사회의 부양문제는 가족갈등 차원을 넘어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박완서의 노년소설은 노년에 대한 환상이나 기대보다는 노년의 현실의 삶과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친절한 복희씨」에서는 반신불수가 되어서도 성욕을 참지 못하는 남편에 대한 복수심을 은장도처럼 지녀왔던 생철갑을 던짐으로써 이해와 관용으로 화해와 상생을 시도하고 있다. 「촛불 밝힌 식탁」에서는 아들부부와 함께 살기를 소망하는 노부부에게 며느리는 서슴없이 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에서 고부갈등의 문제와 함께 세대갈등의 문제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마흔아홉 살」에서도 봉사모임 회장까지 해가며 남들이 꺼려하는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어머니와 이혼한 시아버지를 모시는 과정에서 며느리의 행동은 이중성을 보인다.

이 작품들을 통하여 작가는 노인부양 문제에서 오는 갈등을 현실의 삶에 순응하는 긍정적 모습으로 그리고 있어 노년의 삶을 포용과 관용의 자세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범한 밥상」은 액자소설로 불의의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난 자식이 남긴 어린 손자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세상의 곱지 않은 시선을 감내하는 두 노인인물들을 통해 작가가 지향하는 생명의식을 확대하여 보여준다. 「그래도 해피 엔드」에서는 노인을 배려하지 않는 현대인들의 부도덕한 모습을 보여준다. 노인인 화자가 하루 동안 겪은 일을 소개하면서 현대사회에서 소외된 세대 간의 소통의 문제를 다루면서 노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로 화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노인들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인물을 분석하여 노년의 삶과 현실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 상처의 치유와 융합으로의 복원

박완서는 노년소설을 통해 끊임없이 세대 간 화해와 소통을 시도한다. 상처에 대한 아픔을 관용의 자세로 용서하고 젊은 세대의 불손함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한다.

버스차장이 되기 위해 서울로 올라 온 복희는 집을 나올 때 먹으면 편히 죽을 수 있는 엄마의 '생철갑'을 들고 나온다. 그녀는 방산시장에서 일하다 상처한 가게주인에게 강간을 당하여 아이를 낳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였다. 사랑으로 이루어진 결혼이 아니었기에 남편이 중풍에 걸려 의사소통이 안 되지만 안쓰럽거나 불쌍하기 보다는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한다.

>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가 상처하고 나서 삼 년 안에 새장가를 든 사람은 내가 첫 번째가 아니었다. 나처럼 최소한 육례를 갖춘 혼사는 아니었다고 해도 살림도 잘하고, 가게일도 곧잘 참견할 만한 여자를 들였다가 반년 만에 내치게 된 연유가, 성품이 독해서였다고 한다. 어린 전실 아들을 어찌나 모질게 학대했는지, 외할머니가 와보고 아이가 너무 꼬질꼬질해서 목욕이라도 시켜주고 가려다가 온 몸이 꼬집혀 피멍 든 자국을 보고 놀라 사위한테 일러서 내쫓게 한 모양이었다. 그는 자식이라면 벌벌 떠는 사람이었고, 또 그만한 중심 상권에 자기 점포를 장만해 빈곤을 벗어나기까지는 처가 쪽의 덕이 컸기 때문에 장모도 그 정도의 세도는 부릴 만했다.
>
> 「친절한 복희씨」, pp.242-243

복희씨는 벌레도 못 죽이는 심성 착하고 마음이 온순한 여자로 보였고, 이런 복희씨의 여성스러움은 남편 전처의 장모로부터 외손자를 맡겨도 되겠다는 인정을 받았지만 실제로 그녀는 사내들과 어울려 개구리 뒷다리를 구워 먹기도 하고 벌레를 아무렇지도 않게 죽인다. 부부라 해도 복희씨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 남편과의 성관계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지만 느끼는 척 한다. 그녀가 그런 이유는 남편이 잘되어서 풍족하게 돈을 벌어오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이가 열두 살이나 많은 남편을 부추겨 돈을 더 많이 벌어오도록 요구하는 태도에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물욕과 이기심이 많은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남편은 복희씨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였다. 그런 덕에 노년이 된 지금은 경제적으로 살만하지만 나이가 든 남편은 중풍에 걸렸고 성생활이 불가능해진다. 비로소 '복희씨'는 남편의 성적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돈을 넉넉하게 가지고 있었고 자식들의 효심 또한 극진했기 때문에 행복한 생활을 영위한다. 그러나 남편은 중풍에 걸려 신체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늙고 병들어 무력해졌음에도 여전히 남성임을 강하게 드러낸다. 복희씨는 그 상황이 싫고 불안하다.

>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쓰는 게 이상인 단순한 남자가 늙고 병들어 썩은 포대자루처럼 처져 있는 걸 보면서 나는 측은하단 생각이 들기보다는 기괴한 환상에 시달린다. 저 남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물욕, 식욕, 성욕이 남보다 강하고 그걸 표현하는데 망설임도 수치심도 없었다. 말로도 행동으로도 그런 욕망을 채울 길이 막혀버린 지금 그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생각은 무슨, 그의 속이 텅 비어 있다고 생각해도 불안하고, 텅 비었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다 뭘 자꾸자꾸 쑤셔 넣고 싶어 하는 나는 더 불안하다. 내가 불안한 건 그가 아니라 나다.
>
> 「친절한 복희씨」, p.238

복희씨는 중풍에 걸려 '입안의 침도 제대로 수습 못하는' 남편이 불쌍하지 않고 고소하다. '복희야'라고 부르고 싶을 때 입가에 심한 경련이 일었기 때문인데 자신이 식모살이 할 때부터 부르던 이름이다. 그렇게도 싫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 이름을 불러대는 것에 대한 원망과 분노심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늙고 병들어 처져있는 걸 보면서도 측은한 생각이 들지 않는다. '뭘 자꾸자꾸 쑤셔 넣고 싶어'하는 충동이 생긴다. 이것은 남편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녀는 남편의 모든 욕망과 필요에 따라 응하지만, 집을 나올 때 가지고 온 아편덩어리인 '생철갑'을 자신을 지키는 은장도처럼 품고 산다. 그러나 그것은 내면에 억압된 혐오와 분노를 누를 수 있는 현실 유지의 환상일 뿐이다.

> 주름이 많은 아랫도리를 깨끗이 씻기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시간이 걸리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손길도 섬세해야 한다. 그동안 내가 참아내야 하는 것은 기분이 좋아 흥얼거리는 그의 교성만이 아니다. 나는 그동안 될 수 있는 대로 숨도 안 쉰다. 구린내를 안 맡고 싶은 것보다는 내 안에서 출구를 찾고 있는 잔인한 충동이 겁나기 때문이다. (중략) 요새 다시 예전처럼 납작하고 동그란 금속갑을 꺼내 그 안 하나 가득 말라붙어 있는 까마나 고약 같은 게 잘 있나 확인해보고 위안을 얻는 버릇이 도졌다. 그건 내 인생의 슬픈 동반자이고, 오남매가 흐릿한 30촉 전구 밑에 모여 앉아 이 잡으며 킬킬거리고 자랄 때부터 우리 친정집에 있던 비상약이다. 엄마는 그걸 아편이라고 했다. 어릴 때도 엄마가 아편이라고 말할 때는 바깥의 인기척을 살피면서 목소리를 낮추는 걸로 봐서 불길하고도 신비한 느낌이 들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만병통치약이지만 많이 먹으면 고통 없이 죽을 수도, 남을 감쪽같이 죽일 수도 있는 약이라고 했다. 그런 무시무시한 약이 어디서 났냐고 했더니 엄마는 시집올 때 친정에서 몰래 훔쳐왔다고 했다.
>
> 「친절한 복희씨」, p.248

남편이 중풍에 걸린 후 거동이 불편해지자 복희씨는 용변 후 잘 닦지 못하는 남편의 아랫도리를 씻어주기 시작했다. 복희씨는 그걸 은근히 즐기는 남편에 대해 치욕스러움과 혐오감을 느낀다. 남편은 성적 충족을 위해 하루에 한 번 보던 변을 두 번씩 변을 보기 시작했다. 복희씨는 숨도 안 쉬고 '구린내'도 감당하고 기분 좋아 흥얼거리는 '교성'도 참아냈지만, 자신 속의 '출구를 찾고 있는 잔인한 충동'이 겁난다. 그것은 굴욕감과 수치에 대한 복수심으로 곧 남편을 죽이고 싶은 충동이다. 그녀는 무슨 일이 있을 때 '편히 죽을 수 있다'는 '아편덩어리'를 최악의 순간 자신을 구원해 줄 보물로 여기며 숨겨놓고 있다. 그것은 어머니가 친정에서 몰래 훔쳐온 것으로 중독성이 있으며 심하면 죽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남편의 성적 욕구에 대해 견딜 수 있었던 것도 '생철갑' 때문으로 생각한다.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상황이 닥칠 때 '생철갑'이 자신에게 자유를 줄 것이라고 믿고 그것에 집착한 것이다. 겨우 걸을 수 있게 된 남편은 약사에게 '정력제 비아그라'를 달라고 부탁하고 약사가 건강상 안 된다고 하자 아내가 원한다고 말한다. 약국에 가 보라는 남편의 말에 약값이 모자라서 약을 사오지 못했다고 짐작했던 복희는 약사로부터 야유 섞인 충고를 듣고 충격을 받는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처음에는 그냥 없다고 말씀드렸는데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시고는 자꾸 들르시는 거예요. 말씀은 어눌해도 말귀는 잘 알아들으시니까, 그 몸으로 그런 약 드시면 큰일 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오늘은 또 종이를 달래시더니 마누라가 그걸 너무 좋아하니 좀 봐 달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를 좀 뵙자고, 할머니한테 직접 드릴 수는 있다고 말씀 드렸죠. 연세 차이가 많이 나시는 것 같으니까 그 나름의 고충은 있으시겠지만 참으셔야지 어쩌겠어요. 정말 큰일 나는 수가 있거든요." (중략) 내 딸보다 어린 약사의 능멸과 동정어린 시선의 가시권에서 벗어나려고 달음질쳐 우리 집이 보이는 골목으로 꺾어들자 비로소 모닥불을 뒤집어쓴 것처럼 화끈한 치욕감이 온몸을 엄습한다. 이런 치욕보다는 차라리 분신의 고통이 견디기 쉬울 것 같았다.

「친절한 복희씨」, pp.262-263

약사는 복희씨에게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정력제는 위험한 것이라며 동정과 능멸의 시선을 보낸다. 자신의 성욕 때문에 중풍 든 남편에게 정력제를 먹이려 했다고 생각하는 약사의 오해는 주인공에게 커다란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복희씨의 치욕, 모멸감과는 달리 약을 가지고 올 아내에 대한 남편의 기대어린 시선은 과거의 아픔을 상기시켰다. 결국 수모와 치욕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생각하며 자신을 구원해 줄 '내 인생의 슬픈 동반자'인 '생철갑'을 가지고 한강으로 향한다.

한강물을 보기 전부터 물귀신의 끌어당기는 힘과 그걸 거부하려는 내 안의 힘을 팽팽하게 느낀다. (중략) 내가 죽기도 억울하고 누굴 죽일 용기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너 죽고 나 죽기를 선택한다. 나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죽음의 상자를 주머니에서 꺼내 검은 강을 향해 힘껏 던진다. 그 갑은 너무 작아서 허공에 어떤 선을 그었는지, 한강에 무슨 파문을 일으켰는지도 보이지 않는다. 그가 죽고 내가 죽는다 해도 이 세상엔 그만한 흔적도 남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나는 허공에서 치마 두른 한 여자가 한 남자의 깍짓동만 한 허리를 껴안고 일단 하늘 높이 비상해 찰나의 자유를 맛보고 나서 곧장 강물로 추락하는 환(幻)을, 인생 절정의 순간이 이러리라 싶게 터질 듯한 환희로 지켜본다.

「친절한 복희씨」, p.26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남편에 대한 살의를 느꼈으나 이를 실행하지 않은 것은 남녀의 문제를 대결로 해결하기보다 이해와 관용으로 상생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강물로 추락하는 허리를 껴안은 남녀 모습의 환(幻)은 여성만 과거의 모습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잘못된 과거를 버리고 고쳐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젊을 때부터 복수심을 가지고 있었던 복희는 남편의 성적 욕구는 결코 억압이 아니라 남편의 삶의 방식이었음을 깨닫고 깊은 고민 끝에 '생철갑'을 강물에 던져버린다. 복희씨가 '생철갑'을 버렸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이해와 연민, 남편에 대한 용서와 포용을 의미한다. 죽음은 자유를 의미한다. 그러나 자유는 찰나일 뿐이다. 자신이 죽어도 세상은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이며 어떠한 흔적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내던진 순간 그녀는 자유로움과 환희를 만끽한다. 강물로 추락하는 환(幻)을 보면서 '찰나의 자유', '인생 절정의 순간', '터질 듯한 환희'를 느끼는 것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노년의 원숙한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원망과 증오의 마음을 버리고 복수를 포기함으로써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과거는 어차피 지나간 일이며 다 지나온 삶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고 젊었을 때 가졌던 복수심, 수치심과 분노를 지워버린다. 남편에게 해를 가하거나 자살을 하는 등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자신의 삶과 남편에 대한 연민으로 지난날의 모든 것을 용서하고 포용하여 현실과도 화해하게 된 것이다. 이런 주인공의 모습에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인물임을 알 수 있으며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삶의 연륜이 축척된 노인이기에 이러한 화해와 관용, 원숙한 삶의 모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2. 가족공동체의 회복 갈망

산업화와 핵가족화 이후 주거형태가 달라지면서 가족간의 관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왔다. 공동체 의식이 희미해지고 현대 가족 간의 유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관계는 예전 같지 않다. 현대소설에 나타나는 아파트는 편리한 주거공간이기보다 이웃 간의 소통 단절, 고립감, 소외감, 닫힌 폐쇄적 공간으로서 부정적 의미가 강하게 드러난다. 이로 인해 아파트는 획일성, 익명성, 무관심, 비연대성, 인공성과 같은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아파트 단지의 형성은 주거 양식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사고의 양식, 가족 형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가족 간의 친밀성이나 관계성을 약화시키고 노인문제의 대표적 유형인 소외감을 가중시킨다. 박완서는 예전과는 달라진 현대인의 삶을 세대 간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등을 통해 드러내고 소외된 노인의 관용과 원숙함으로 해결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촛불 밝힌 식탁」은 초등학교 교장을 지내고 퇴직한 지 오년 남짓 되는 주인공 '나'는 자식 가까이 살고 싶어 하지만 며느리의 논리적인 반박에 의해 거절당한다. 이는 가족 간의 공간적·심적 소외와 단절 현상을 보여준다. 이들 부부는 퇴직하고 오랫동안 떨어져 살던 아들네와 같은 집에서 살고 싶었지만 며느리가 반대하자 원하는 조건의 아파트를 사주고 아들네 집을 바라볼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한 아파트 또 한 채를 마련했다.

> 내 생각으로 결코 지나친 욕심을 부린 것 같지 않은데 며늘애가 눈을 똑바로 뜨고 말했다.
>
> "아버님, 저희들이 맞벌이 하면서 연년생으로 아이 둘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친정엄마가 파출부처럼 드나드시지 않았으면 우리 둘 중의 하나가 직장 그만둬야 했을 걸요. 솔직히 저이 직장보다 제 직장이 도중에 그만두기 아까운 직장이란 걸 아버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눈물나게 아이들 키워 이제 돈 들 일만 남았지 잔손 갈 일은 없어져서 숨 돌리게 되니까 같이 사시자고요?"
>
> 며느리는 우리 부부를 마치 이런 염치없는 늙은이들이 있나, 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또박또박 말했다.
>
> 「촛불 밝힌 식탁」, p.189

며느리는 남편보다 자신이 경제능력이 뛰어남을 앞세워 부양을 거부하고 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느리의 일방적인 주도하에 학군 좋은 아파트 단지의 아파트 두 채를 사게 된다. 결국 물질만능주의가 가족 간의 유대감을 약화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 노인들은 가족 구성원에서 필요 없는 존재로 취급당하는 모습에서 '중학교 사회 선생'인 며느리의 직업은 그녀의 이중적인 면모와 함께 부도덕한 성품을 강조하여 보여준다.

"아버님, 이왕 이렇게까지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어려운 부탁하나 드릴 게요. 아버님은 죽 지방에서만 사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우리 사는 아파트가 얼마나 후진 아파트라고요. 처음에 사 주실 때 조금만 안목을 높여 사 주셨더라면 투자가치도 있었을 텐데, 영 아니거든요. 우리 동네처럼 안 오르는 동넨 처음 봤어요. 왠 줄 아세요. 학군이 안 좋고 학원도 좋은 학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중략) 아버님은 이제 가르칠 아이도 없는 데도 좋은 동네에서 사시고 싶으신가 본데 저희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동네에서 합쳐 살 돈을 쪼개서 좋은 동네에 아파트를 두 채 장만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어요. 물론 지금 사는 저희 아파트는 처분해서 보태야죠. 보태고 말고요."

「촛불 밝힌 식탁」, p.190

결국 옆동에 사는 것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자식에게 큰 평수의 아파트를 구입해준다. 아내는 '수프가 식지 않는 거리'가 부모 자식 간의 이상적인 거리라고 좋아했지만, 며느리가 가끔이라도 따뜻한 음식을 해 나르기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에 나는 아내에게 서로간의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자며 '불빛을 확인할 수 있는 거리'에 살 수 있다는 것을 만족하게 생각한다.

또한 며느리는 '손주가 드나드는 것을 보며 말벗도 되면 늘그막에 덜 적막'할 것 같다는 시부모의 말에 '그것은 손자가 예뻐서가 아니라 직업병'이라며 주저없이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이것은 효 사상이 약화되고 전 세대와는 달라진 가족관계의 한 단면이며 가족과의 단절감으로 인해 소외를 받는 현대 노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며느리에게 소외당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 「황혼」에서도 서구적 교양에 익숙하고 서구적 삶의 공간인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서 정신적으로 버림받은 노인의 고독감과 소외감을 묘사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집안의 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소사를 결정하고 가족 구성원의 행동을 규율하는 인물은 새파랗게 젊은 며느리이다. 노인들이 며느리에게 이처럼 수모를 겪어야 하는 것은 현대 노인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격하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45]

아들네의 초대로 깔끔하게 장식한 식탁에서 퓨전 음식으로 차려진 식사 대접을 받는다. 처음에는 요리법까지 묻던 아내가 집에 와서는 자신의 입에 맞는 음식을 먹는다. 그 이후 아내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다주기 시작했다. 아내는 그걸 반기더라는 얘기를 자랑스럽게 하면서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을 나르는 빈도가 잦아졌다.

> 나는 아들네로 음식 해 나르는 재미로 새록새록 살맛이 나 보이는 아내가 측은하고도 불안해 보여 여보, 넘치는 건 모자라는 것만 못하다우. 하고 넌지시 귀띔을 하고 했다. 그러지 않았으면 아마도 매일 그 짓을 하고 싶어 했을 것이다. 가끔 허탕을 치고 올 적도 있었다. 온 식구가 외식을 하는지 집이 비어 있더라고 했다. 정성을 다해 솜씨 부린 별식을 못 먹이고 온 마누라는 어깨가 축 처지고 황량해 보였다. (중략) 마누라가 다시는 허탕치는 일이 없도록 마누라가 아들을 위한 별식을 만드는 동안 나는 베란다에 나가 아들네 집 창문의 불빛을 살피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나도 아내 못지않게 조바심이 나서였다. 무심히 볼 때는 몰랐는데 지켜보고부터는 창에 불이 안 들어오는 날이 점점 잦아지는 것 같았고, 그건 신기할 정도로 마누라가 별식을 만드는 날과 일치하곤 했다.
>
> 「촛불 밝힌 식탁」, p.194

가까운 아파트에 살면서 집에 불이 켜진 것을 보고 '생사를 확인'하면서 살자던 계획은 아들네 아파트의 불이 꺼져 있어서 지킬 수 없었다. '나'는 아들네 집에 음식을 해다 주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아내를 측은하게 생각한다. 아내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나'는 아내가 음식을 가져가는 날이면 희미한 불빛이 아른 거릴 뿐 불이 꺼진 것을 보고 베란다에서 아들네 집 창문의 불빛을 살핀다. 집안에 누군가 있는 것 같지만 불은 꺼져있는 것이다. 이상한 조짐을 느껴 아들의 집을 방문한다.

---

45) 김홍신, 「1970년대 소설에 나타난 산업화 양상」,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도 감시하는 마음으로 지켜본다는 건 안 좋은 일이었다. 나는 언제부터인지 아들네의 불 꺼진 창이 딴 집의 불 꺼진 창하고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다. 칠흑이 아니라 모닥불의 잔광 같은 불확실한 밝음이 깊은 데서 일렁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왔다,(중략) 모닥불의 잔광 같은 희미한 빛을 보았다기보다는 느낀 어느 날 저녁, 그날은 마누라가 아들을 위한 별식 같은 걸 한 날도 아닌데 나는 슬쩍 산책 나가는 척 혼자 나가 맞은편 아들네 아파트로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다. 연거푸 두 번 세 번까지 눌러보았다.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나는 느낌으로 안에서 웅성대는 인기척과 현관문에 달린 동그란 렌즈가 비정한 외눈으로 변하는 걸 알았다.

「촛불 밝힌 식탁」, p.195

시부모의 방문을 싫어하는 아들부부는 주인공의 아내가 음식을 만들어 가져올 시간이 되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아파트의 불을 끄고 생활한다. 이는 부모의 방문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자식 세대의 몰염치하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은 부모의 역할 상실과 자식의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내며 동시에 부모 세대의 전통적 가치관과 젊은 세대들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충돌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마침 아들네 앞집에 사는 여자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게 되어 불이 꺼진 908호에 대해 물어본다.

"앞집 선생님이요? 들어오셨는데. 방금 전에 저희 집으로 파 한 뿌리를 얻으러 오신 걸요"

마누라도 알건 알아야 한다. 하나 나처럼 충격적으로 알게 하고 싶진 않다.

우리도 젊은이들처럼 무드 한번 잡아봅시다. 이러면서 온 집안의 전깃불을 다 끄고 소년소녀가 마주 보고 생긋 웃는 형상의 아름다운 한 쌍의 양초로 식탁을 장식한다면 알아들을까.

마누라에게는 알아듣는 것보다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쇼윈도에 비친 내 모습이 두 개의 양초밖에 안 들었다기에는 너무도 무겁게 처져보였다.

「촛불 밝힌 식탁」, p.196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나’는 마누라가 좋아할 인형 모양의 양초를 사서 부부끼리 행복하게 살자고 제안한다. 이것은 남편이 아내의 마음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배려하는 주인공의 따뜻한 마음이자 자식과의 단절에서 오는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인의 의지이며 인생의 연륜에서 오는 지혜이다.

이 작품에서 노인부부는 아들네와 진정한 소통을 하지 못하지만 아들네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남편의 자세는 바람직하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저물녘의 황홀」에서도 자식들로부터 소외된 노인인물이 등장한다. 아들 둘을 모두 미국으로 보내고 평생 효도하겠다던 딸도 결혼하면서 미국으로 떠나게 되자 자식들이 보고 싶어 ‘나’는 암에 걸려도 좋다고 생각한다. 암 진단을 받고 싶어서 병원을 찾았지만 친구의 아들인 의사에게서 ‘꾀병′ 앓기도 힘든 세상이라는 말을 듣고 모욕감을 느낀다. 그 때 ‘나’의 할아버지의 첩인 하조댁이 할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졌을 때 자신도 ‘꾀병’ 중풍으로 쓰러져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옆에서 말벗이 되어주었던 것을 떠올린다.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는 달리 ‘나’는 하조댁의 그러한 행동이 할아버지를 외로움으로부터 지켜주었을 것이라고 믿었다. 옛 일을 회상하며 ‘나’는 자식들로부터 소외되었지만 ‘내 몫의 고독을 극치까지’ 몰고 가보겠다는 의지로 고독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자식들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현실을 인정함으로써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홀로서기를 시도하는 모습은 노인물의 관용과 성숙한 의식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노인부양 문제와 관련하여「마흔아홉 살」에서는 시부모님의 불화로 시아버지를 모시게 된 며느리의 위선과 허위의식을 드러낸다. 카타리나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둔 학부형끼리 과외공부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가까워진 모임의 회장이다. 아이들이 자라 대학에 들어가자 중년의 허전함을 메우기 위해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기로 하여 모임 이름도 ‘애정보다는 의무’의 느낌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효부회’로 정하고 남성 노인들의 목욕 봉사를 하기로 결정한다.

-성당 피정 가서 같은 학교 학부형끼리 친해지고 어떤 학원이 좋은지, 어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선생이 쪽집겐지, 아이들의 과외공부 정보 교환하다가 하나 둘 대학에 집어넣고 나니 홀가분하다가 허전해지고 그래서 몇 번 같이 몰려서 나이트도 가보고 관광도 다니다가 이럴 게 아니라 뭐 좋은 일 할 게 없나 물색하다가 돌볼 가족이 없는 노인들 목욕 봉사를 다니자는 제안을 한 것은 나야, 나.

-그래 그건 네가 했다고 치자. 그때 그럴듯한 의견이 좀 많이 나왔냐. 입 가지고 듣기 좋은 소리 누군 못 하냐? 그 분분한 여러 좋은 의견 중에서 목욕 봉사를 확 낚아챈 게 카타리나였잖아.

「마흔아홉 살」, p.84

자신과 가족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고 관심을 가지면서 도움을 주는 자원봉사는 보람 있고 숭고한 일이며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성숙한 삶을 살게 한다. '카타리나'는 회원들에게 돌볼 가족이 없는 노인들에게 목욕 봉사활동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봉사활동을 할 때에도 다른 교우들이 천사라고 부를 만큼 적극적이고 헌신적이다. 남자 독거노인을 상대로 하는 목욕 봉사에서도 다른 회원들이 꺼리는 일을 담당한다. 카타리나는 남자 노인들의 성기 부분을 씻기는 손이 많이 가는 일이지만 정성을 다해 씻기고 이러한 모습을 본 다른 회원들은 그녀의 봉사정신에 감탄한다. 하지만 카타리나가 시아버지의 팬티를 집게로 집어 세탁기에 던지는 장면을 한 회원이 목격하면서 그녀의 위선적인 행동이 회원들 사이에 비난의 대상이 된다.

- 어머머..... 카타리나 그 천사 같은 여자가 어쩜 그럴 수가. 말도 안 돼.

- 누가 아니래. 나도 내 눈을 의심했다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겉 다르고 속 다를 수가 있는지, 완전히 딴 사람이야. 나한테 현장을 들키고도 눈 하나 깜박 안 하더라니까. 어디서 그런 집게는 구했는지 이따만 하게 기다란 집게 끝으로 시아버지 팬티를 집어가지고 그 어른 방에서 나오는데 어찌나 험하게 오만상을 찌푸리고 있는지, 난 카타리나가 빨랫감이 아니라 약 먹고 죽은 쥐나, 뭐 그런 끔찍한 걸 집어가지고 나오는 줄 알았다니까. 그래도 그게 다였다면 이런 말 꺼내지도 않았을 거야. 글쎄 끝까지 그 영감님 속옷을 죽은 쥐 취급을 하면서 다용도실까지 뻗쳐들고 가더니 세탁기 안으로 냅다 뿌리치는데, 그 서슬이 어찌나 시퍼렇던지 그까짓 헝겊조각에서 쨍그렁 소리가 나는 것 같더라니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마흔아홉 살」, p.83

주인공 '카타리나'는 모임에 참석한 회원들을 위해 맛있는 김밥을 사러 재래시장까지 갔다가 모임에 늦게 참석하게 된다. 현관문이 열려있어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집안에 들어섰다가 자신을 향한 회원들의 험구를 듣게 된다. 배달 시켜도 되는 걸 누가 저더러 사서 고생 하라고 했냐느니, 회장 노릇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과시하려고 일부러 그런다느니 하면서 그녀를 깎아내린다.

시아버지 속옷을 집게 끝으로 집어서 험하게 오만상을 찌푸리고 나오는 것에서 점잖은 시아버지가 구박 받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카타리나는 천사와 악마의 두 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자라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다.

회원들은 카타리나의 위선에 분개하며 점잖고 깨끗한 시아버지의 팬티를 집게로 집어던지는 '독종'이라고 비판하며, 다른 노인들의 성기는 오래 주물럭거리며 닦는 '엽기'적인 행동을 하는 이중적 인간이라고 비난한다. 회원들은 효부회 회장을 맡은 것은 '권력욕' 때문이며 봉사하는 이유도 이타적인 것이 아닌 노인 장비를 판매하는 사업가 남편의 비즈니스 때문이라고 비난한다. 카타리나는 회원들의 비난을 들은 후에도 그 사실에 대해 해명하거나 부인하지 않는다. 오히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시인하고 진실과 거짓을 자신도 모르겠다며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를 들은 친구는 인간에게 위선은 불가피한 것이며 때로는 위선이 '윤활유'가 될 수도 있다고 역설한다.

박완서는 작중인물의 이중적 행동을 통해 허위와 위선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김병익은 여기에서 추상과 현실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노년의 지혜이며 '관계의 윤활유로서의 위선', '거저나 마찬가지'에서의 사회화 과정은 이 세상이 만만치 않은 세계임을 깨닫게 해준다고 하였다.[46]

앞에서 칭찬하고 뒤에서 험담을 일삼는 마흔아홉의 속물적 근성,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무의탁 남자노인 목욕봉사를 실천하는 의지를 가진 여성들이면서도 치명적 상처가 될 이야기들을 거리낌 없이 내뱉는 양면성을 비판하고 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독선적이고 가부장적인 태도 때문에 이혼을 요구한다. 시어머니는 당신이 하고 싶은 마지막 소원이라며 강력한 힘주어 말하며, 결국 이

46) 김병익, 「험한세상 그리움으로 돌아가기」, 『친절한 복희씨』, 앞의 책, 2008. p.291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혼을 강행했다. 이혼 후 시어머니는 딸의 집에 살게 된다. 대학교수인 딸의 집에 사는 어머니는 아줌마를 부리고 손자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방과 후 다녀야 하는 수많은 과외학원 교통정리를 하는 일을 맡아하고 있다. 시어머니에게 있어 잘난 딸의 주부로서의 약점을 커버해주는 일은 보람이 있었고 하루하루 생기가 넘쳐난다.

> 두 분의 왕래는 시어머니가 딱 자른 대로 전혀 없었다. 그 대신에 아들네 식구가 어머니를 뵈러가고, 딸네 식구가 아버지를 뵈러 오는 일이 너무 뜸하지 않도록 양가에서 신경을 썼기 때문에 제 살기 바빠 명절 때나 만나도 그만인 중년의 남매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친밀해졌다. 모두모두 행복했다. 시어머니의 결단은 그야말로 모두모두의 행복을 위한 탁월한 선택이었다. 그런데도 시누이가 어머니가 와 계시니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야비다리를 치는 소리를 들으면 울컥 부아가 치밀면서 시어머니에 대해 참을 수 없는 적의에 사로잡히곤 했다. 시아버지 팬티는 자동적으로 시어머니 얼굴을 떠올리게 했다.
>
> 「마흔아홉 살」, p.102

헤어진 노부부는 억지로 자식들에게 의탁하려 하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구박하면 유료양로원으로 가겠다며 경제적인 여유도 갖추고 있다. 이 작품의 중심인물인 시어머니로 대변되는 노인의 모습은 그야말로 당당하다. 그동안 결혼이라는 제도가 불합리한 구조로 여성의 인생을 소모하게 만드는 것이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노년의 당당함을 그려냄으로써 작가는 기존 가치관으로는 변혁의 물결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47]

'카타리나'는 회장님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심에서 비롯된 자신의 잘못임을 시인하고 그런 위선과 허위의식마저도 자신의 모습임을 인정한다. 사회활동에 열심이었던 이면에는 고부갈등이라는 가정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힘들어진 상황에서 갈등해소의 한 방법으로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 결혼하고 시집의 반듯한 가풍에 따라 삼년이나 시집살이를 했는데 그때 제일

47) 최진숙,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노년의 삶 연구」, 목포대 석사학위논문, 200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자주 들은 소리가 반듯한 집안 타령이었다. 내가 한 것은 뭐든지 다 반듯한 집안에서는 이렇게 안 한다고 타박을 했으니까. 하다못해 돼지고기도 상에 올리면 반듯한 집안에서 누가 이런 걸 먹냐고 남까지 못 먹게 했다면 말 다했지. -중략- 엑스터시까지는 안 가도 오래간만에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기분이더라. 마치 복수라도 한 것처럼. 혼자서 괜히 실실 웃으면서 집에 와서 생각하니 내가 겨우 이것밖에 안 되나 비참해지더라구

「마흔아홉 살」, p.103

시부모의 불화는 별거로 이어졌고 그 결과 시아버지는 며느리인 자신이 모시고 시어머니는 딸네 집에서 딸 대신 손자들을 키우고 살림살이를 대신하며 살아간다. 시어머니가 해야 할 일을 자신에게 전가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에 대한 화풀이가 시아버지 속옷으로 전이된 것이다. 마흔 아홉의 나이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이혼한 시아버지의 수발을 들어야 하는 그녀로서는 시아버지가 아무리 점잖고 며느리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다.

올해는 일부종사의 따분한 팔자를 교란시킬 수 있는 불꽃같은 사랑을 기다려 보기로 한 마지막 해가 아닌가. 세월이 빠져나간 자리의 허망함이여, 그 여자는 요새 부쩍 더해진 식탐이 걷잡을 수 없이 도지는 걸 느꼈다. 조금씩 같이 먹은 줄 알았는데 김밥과 순대는 거의 그냥 남아 있었다. 그 여자는 그 소박하고도 느글느글한 것들을 짐승 같은 식욕으로 먹어치우고 인삼차를 한 잔 더 시켰다. 바지 허리는 만복을 이기지 못해 짤룩하게 뱃살과 허릿살을 갈라놓고 있었다. 명치가 등에 붙을 듯이 날씬하다가도 생명만 잉태했다 하면 보름달처럼 둥글게 부풀어오르던 배는 이제 두꺼운 비계층으로 낙타 등처럼 확실한 두 개의 구릉을 이루고 있었다. 허리의 후크를 풀자 역겨운 트림이 올라왔다. 자신이 비곗덩어리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지면서 메마른 설움이 복받쳤다.

「마흔아홉 살」, p.108

'카타리나'는 우아하게 살고 싶었지만 시아버지를 모시면서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 자신의 처지와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해소한다. 그런 뒤에는 비곗덩어리 같은 스스로의 모습에 서러워진다. '카타리나'는 나이가 들어가는 만큼 아름다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원숙한 삶을 소망해보지만 현실 앞에서 좌절한다. 마흔 아홉 살의 여성은 '불꽃 같은 사랑'을 꿈꾸어 보지만 현실의 고단함과 참담한 자신의 모습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외모의 변화와 여성성을 상실해 가는 삶의 비애를 폭식을 통해 해소하려 하지만 내적 체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다. 이러한 중년 여성은 자신의 행위 속에 들어 있는 허위, 이중성, 위선을 부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필요악으로 동의하고 있다. 부양 문제와 관련한 가족 간 갈등을 그린 「천변풍경」의 배우성도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소리 하나에도 신경 쓰며 살아가는 소외된 인물이다. 전직 교수인 배우성은 해직을 당하고 아들네 집에 같이 살면서 약수터에서 만난 '백수회'회원들로부터 가입권유를 받는다. 어느 날 백수회를 오래 살고 싶어서 환장한 노인들의 모임으로 규정하고 '망령회' 라고 하는 며느리의 말을 엿듣고 충격을 받는다.

이 작품에서도 노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로 인한 노인들의 소외감과 외로움의 정서를 그리고 있다. 대화를 한다고 해도 세대 차이와 입장 차이로 인해 서로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 이들 소설 속 젊은 세대들은 노인에 대해 관심이 없고 한 공간에 살면서도 단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 노년의 지혜로움과 주체적인 삶

노인문제는 부양과정에서 오는 가족 간의 불화나 소통의 부재,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노인의 부적응 문제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상황을 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박완서는 「그래도 해피 엔드」를 통하여 세대의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는 문제를 배려와 관용으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것이 그 해결 방안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서울 토박이로 서울에 기반을 두고 살다가 은퇴한 지식인이다. 그녀는 교양을 갖춘 여성 노인으로 은퇴 후 본래 고향인 서울과 가까운 곳에서 전원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차가 없기 때문에 한 번의 버스승차로 서울 지하철 2호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과 가까이 연결되는 편리한 교통편이 그나마 위안이 된다. 그러나 '서울의 삶'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인공에게 전원생활은 금방 싫증이 났고 서울생활이 그리워 동창모임을 핑계로 서울나들이를 준비하게 된다.

"할머니, 버스는 열린 문으로 타는 게 아니라 앞문으로 타는 거예요. 앞문이요, 앞문. 알아들었어요?"

나 귀먹지 않았다고 대들고 싶은 걸 참았다. 싱글대는 시선이 나에게 집중된 걸 느끼면서 버스 한가운데서 손잡이를 잡은 채 무력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할머니 앉아요, 안자. 빈자리도 안 보여요? 뾰족구두를 신고 비틀대다가 엉덩방아라도 찧으면 어쩌려고."

승객 중의 한 사람이 걱정하는 투가 아니라 놀리는 투로 그렇게 말하자 운전기사가 맞받았다.

"어쩌긴 뭘 어쩌겠어? 나만 덤터기 쓰는 거지, 뭐."

내가 그때까지 앉지 못하고 서 있는 건 앉을 줄 몰라서가 아니라 버스 값은 내고 앉아야 할 것 같아서였다. (중략) 핸드백에서 잔돈을 찾고 있는데 운전기사가 또 말을 시켰다.

"할머니, 버스값 없어요?"

"아마 만 원짜리밖에 없을 거야."

승객 중의 한 사람이 맞받았다. 기사하고 승객들은 마치 한 마을에서 작당해서 어딘가로 심심풀이 삼아 나쁜 일을 저지르러 가는 사람들처럼 권태로워 보이면서도 손발이 척척 맞았다. 그런 소리까지 듣고 보니 잔돈을 찾는 손이 벌벌 떨리기까지 했다.

「그래도 해피 엔드」, p.272

동창모임이 있던 날, 뾰족구두를 신고 한껏 멋 내고 버스를 탄 주인공에게 기사는 앞문으로 타지 않았다고 역정을 낸다. 버스요금을 내기 위해 자리에 앉지 못하고 잔돈을 찾는 상황에서 승객들은 '만 원짜리밖에 없을 거야'라는 식으로 빈정댄다. 신체적 약자인 노인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냉소적 어투는 현대인들의 몰인정하고 부도덕한 모습을 보여준다. 다음 역에서 내리기 위해 서 있는 것조차도 '앞문으로 타고 뒷문으로 내리는 것도 모르느냐'는 식의 빈정거림과 '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국에서 왔을 거야'라는 등의 농지거리를 하며 '탁하고 악랄한 웃음소리'를 내는 모습에서 주인공이 노인이라는 이유로 멸시와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소통의 단절과 소외로 인해 사회에서 어른으로 대우받아야 하는 노인의 마땅한 권리가 소멸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거의 갈아탈 역이 다 된 것 같아 내다보니 올림픽공원 지나 방이역으로 진입 중이었다. 이를 어쩌나, 광장역에서 반대 노선을 탄 거였다. 안내방송이 내 옆의 남자의 휴대전화를 타고 상대방의 귀에 들릴 걱정만 했지 정작 그 내용을 귀담아 듣지는 않았던 것이다. 잘못 탄 걸 어떻게 되돌릴 수 있다는 마련도 없이 우선 내리고 봤다. 다시 2호선이 그리웠다. 2호선은 방향을 잘못 타도 순환선이니까 마냥 앉아만 있으면 원하는 역에 도달하게 돼 있었다. 바깥만 내다볼 수 있어도 이런 실수는 안 하는 건데. 2호선 구간에는 지상을 통과할 적도 있다는 것까지가 그리웠다. 땅속에 그렇게 오래 있지도 않았건만 지상의 공기가 그리웠다. 반대 노선으로 가지 않고 지상으로 솟아올랐다.
>
> 「그래도 해피 엔드」, pp.278-279

전철 안에서 휴대전화 소리 때문에 상념에 잠길 수 없고 걸려온 전화를 받는 모습, '요상한 전화내용'을 들으며, 예절이 실종된 현대 사회의 모습은 모처럼 나선 나들이를 씁쓸하게 한다. 그런 사람들이 사기꾼이거나 대사 연습을 하는 배우 같은 인물이 아닌 '피곤하고 허름한 전형적인 도시인'이라는 걸 강조하고 이러한 행동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려의 시선을 나타내고 있다. 목적지와 반대 방향의 노선을 탄 것, 타고나서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한 판단과 선택에서 망설이는 노인의 모습을 통해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노인의 현실 부적응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작가는 노인에 대한 사회의 이해심과 배려심이 부족한 현실을 비판하며 노년에 겪게 되는 소외감에 대해 고민하고, 관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생기긴 소박하다기보다는 촌스럽게 생긴 젊은이였지만 활짝 웃는 잇속이 희고 깨끗했다. 나는 그게 눈부셔 뭐라고 고맙다는 인사와 칭찬의 말을 합쳐서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는 소리가 엉뚱하게도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네'였다. 젊은이는 조금도 어리둥절해하지 않고

"사모님 어쩐지 멋쟁이다 싶었는데 외국에서 오래 사시다 오셨나 봐요. 그렇죠?"

나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다만 활짝 웃어주었다. 그가 나에게 축복이 되었듯이 나도 그에게 축복이 되길 바라면서.

「그래도 해피 엔드」, p.280

젊은 택시기사는 기분이 우울해진 나에게 '사모님', '멋쟁이', '외국에서 오래 사시다 오셨을 분'이라고 칭찬한다. 그 모습을 활짝 웃는 잇속이 희고 깨끗하고 눈부시다는 묘사를 통해 고마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로써 동창모임에 가는 동안 생긴 마음고생이 택시기사의 한마디로 인해 '해피 엔드'가 된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생긴 세대 간 갈등 문제를 단순한 칭찬을 통해 해소하고 있는 것이다.

작가는 노인을 배려하지 않는 부도덕한 사회의 단면과 함께 택시운전사의 작은 배려로 갈등이 해소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다. 노인 소외 문제는 젊은 며느리와의 갈등에서 노인의 소외를 그린「황혼」, 아내와 사별 후 아들네 아파트에 살면서 가족들의 무관심으로부터 느끼는 외로움을 그린 「오동의 숨은 소리여」에서도 제기하고 있다. 김 노인은 새장가 갈 궁리를 한다는 오해를 받고 죽을 생각을 한다. 그러나 계절의 변화에 감동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는 모습에서 노인들도 젊은이 못지않은 감성과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러한 작품을 통해 작가는 노인에 대한 젊은 세대의 무관심을 비판하고 있으며 노인의 삶을 존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대범한 밥상」에서 칠십이 다 된 주인공은 남편과 사별한 지 삼년 만에 시한부 인생을 판정받았다. 회계사였던 남편은 죽기 전 자식들의 재산을 비슷하게 해주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여 살림이 넉넉한 자식에겐 좀 적게, 부족한 자식에겐 좀 많이 유산을 양도함으로써 자식들의 생활수준은 비슷해졌다. 재산이 공평해지자 형제들의 우애가 예전 같지 않았다. 노력 하지 않고 잘 살게 된 막내를 업신여겼다. 뿐만 아니라 막내사위가 사업에 실패해서 재산을 탕진하게 되자 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식들은 서로 적대시하고 외면하며 상대의 불운을 오히려 고소해하는 매정한 사이로 변해버렸다. 또한 유산으로 물려받은 땅값의 시세를 비교해가며 서로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남편이 공평하게 나누어 준 유산은 그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공평하지 않은 것이 되었다. 때문에 죽음을 앞둔 주인공은 유산배분으로 인한 남편의 처사 때문에 삼남매의 어긋난 우애가 영영 돌이킬 수 없는 파국에 이를 것 같았다. 남편의 전철을 밟아 자신의 남은 유산을 삼남매에게 차등을 두어 분배하는 방법밖에 없고 그것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 고민하다 동창모임에서 만난 친구 경실이를 떠올리게 된다.

여고 동창생인 경실에게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비행기 폭파 사고로 딸과 사위가 동시에 사망하는 불운을 겪었다. 당시 여섯 살, 세 살의 어린 남매를 남겨두고 떠난 경실의 딸의 죽음은 더욱 애절하고 충격적이었다.

> 여섯 살, 세 살 어린것들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서 손을 꽉 잡고 있는 네 사람의 구도는 너무도 확고하고 흔들림이 없어서 마치 옛날 가족사진처럼 보였다. 순간 우리는 다들 배신감에 가까운 실망감을 느꼈다. 잔뜩 기대하고 각오하고 있었던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서였을까. 아무튼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더군다나 경실이 사돈영감은 상처한 지가 일 년도 채 안 되니, 땅을 치고 하늘을 우러러 삿대질을 해도 누가 뭐랄 사람 없는 처지였다. 저렇게 침착하고 꿋꿋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그들은 침착할 뿐 아니라 젊어 보이기까지 했다. 입 싼 혜자가 기어코 한 마디 내뱉었다.
>
> 재네들 저래도 되는 거니? 늦둥이를 낳은 중년부부라고 해도 곧이 듣겠네.
>
> 듣고만 있을 우리들이 아니었다. 다들 한 마디씩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고 맞장구를 쳤다.
>
> 「대범한 밥상」, p.210

장례식장에 조의금을 전달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어린 외손자 남매를 사이에 두고 친할아버지와 양쪽에 나란히 서 있던 경숙의 모습은 모임 때마다 화제가 되었다. 유족들의 오열과 몸부림. 까무러쳐 실려 가는 일이 벌어지는 장례식장에서 '침착하고 꿋꿋한',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모습에 '배신감에 가까운 실망감'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느꼈다. 경실이가 서울 살림을 정리하고 사돈이 있는 시골로 내려가 사돈영감과 살림을 합쳤다는 소문이 돌게 되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인데다 경실을 믿었기 때문에 화제에 끼어들지 않지만 그런 이야기가 재미없는 것은 아니다. 경실이를 두둔하는 마음에 '나'는 소문을 낸 혜자에게 직접 보았느냐고 물어보지만, 혜자는 딴 소리를 한다.

> 한번은 영감님이 손녀를 자전거에 태우고 읍내로 난 길을 가는 걸 봤는데 경실이는 대문 밖까지 나와서 그들이 멀어져가는 걸 마냥 손을 흔들어 배웅하고 영감님은 위태롭게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면서 하니 안녕, 안녕 하니, 하더라는 것이었다. 자는 건 못 봤어도 그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한 폭의 그림이더라.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는. 그럼 됐냐? 내가 뭐라고 하기 전에 다들 한 마디씩 했다. 늙은이들이 하니라니 미쳤군 미쳤어. 미쳐도 더럽게. 아이고 닭살이야. 나는 암말도 못했지만 이미 등줄기에 닭살이 돋고 있었으므로 몸으로 동의한 거나 마찬가지였다.
>
> 「대범한 밥상」, p.213

경실의 사돈영감이 손녀를 자전거에 태우고 문밖에서 배웅하는 경실에게 '하니 안녕'이라고 손을 흔들더라는 말을 믿은 주인공에게 혜자는 사돈끼리의 망측한 동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식구들의 사는 모습을 전해주곤 했다. 두 늙은이 다 눈치 볼 거 없이 깨가 쏟아지겠다,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의 동거가 오죽 창피하고 힘들었으면 동생까지 데리고 떠났겠냐 등 억측이 분분해진 가운데 '그 많은 돈이 어디 갔을까'에 관심이 모아지게 된다. 친구의 사정을 애처로워하고 위로하기보다는 돈에 관심을 보이는 물질중심주의의 현대인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 그 끔찍한 참척을 겪고도 눈이 초롱초롱해서 밥을 아귀아귀 먹은 것도 거액의 보상금 때문일 거라고 했고, 그 후에도 외가 친가의 두 늙은이가 아이들 손목을 양쪽에서 부여잡고 한시도 놓지 않은 것도 그 아이들에게 지급될 돈에 대한 후견인의 권한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는 행동으로 이미 자리매김한 뒤였다. 상식에 어긋난 이 일련의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모두 다 돈 욕심으로 풀자, 매듭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을 잘 드는 칼로 내리친 것처럼 세상만사는 의외로 간단하고 어이없어졌다.

두 늙은이가 깨가 쏟아지게 살게 된 지 얼마 안 있다. 사돈영감이 먼저 세상을 떴다. 지금은 경실이 혼자서 그 집을 지키고 있다. 그녀가 살던 아파트는 아직도 서울에 있다는 데도 돌아오지 않고 그 집에 남아 있는 것도 혹시 그 집에 대한 욕심이 아닐까. 의심나는 점이 없지 않지만 다들 경실한테 시들해진 지 오래다.

「대범한 밥상」, pp.214-215

'나'는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우애가 틀어진 상황을 보면서 유산문제로 고민하다 경실을 찾아간다. 경실이 거액의 보상금 때문에 서울살림을 마다하고 시골까지 내려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돈이 어느 만치 중요한지도 잘 모르고, 세상물정에도 어두운데 비해 돈 때문에 인면수심을 마다한 경실은 재산분배와 관련하여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해 그녀를 찾아간다.

시골에서 만난 경실은 자신들의 사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사실까지 다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자신에겐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선택이었다며 오히려 이를 이상한 눈으로 보는 타인의 시선에 초연한 여유를 보인다.

혜자가 오해한 하니라는 말은 세 살짜리 어린아이가 제대로 발음하지 못해 할머니, 할아버지를 하니, 하지로 부른 것이었다. 그들의 동거 또한 부도덕한 동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상치 못하게 한순간에 부모를 잃은 어린 손자들이 중간에서 쇠사슬이 되어 자신과 사돈영감을 묶어놓고 안 놓아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어린것들 때문에 실컷 울지도 못하고, 영감님이라도 시골집에 내려가서 통곡을 하든지 말든지 하고 나서 하루 빨리 직장으로 복귀해야 할 것 같았지만 아이들이 놓아주지를 않아 우리 집으로 같이 왔지 사돈집에서 하루 이틀 유할 수도 있는 거지, 안 그러니? 거기까지는 우리도 상식이 통하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해. 밤에 잘 때가 문제였다. 장례 동안 네 사람이 붙어다닌 것처럼 그렇게 남매가 가운데 눕고 두 늙은이가 양옆에 누워 자기를 바라는 거야. 아이들이. 처음엔 안 된다고 했지. 계집애가 빤히 쳐다보면서 왜 안 되냐고 묻는 거야? 아녀석은 뭐 좀 철이 난 줄 알았는데 역시 더 무서운 얼굴로 왜 안 되냐고, 즈네들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안 보는 사이에 도망갈 거냐고 따지는 거야. 왜 안 된다는 걸 설명할 수가 없었어. 그때 우리는 그 애들이 절박하게 원하는 거면 다 옳은 일이었으니까

「대범한 밥상」, pp.224-225

사돈영감은 며칠 경실의 집에서 지내며 경실과 함께 손자들의 불안감을 덜어주려고 했다. 그러나 경실의 사돈영감은 직장에 나가야하기 때문에 시골에 내려가야 했고 경실은 이런 상황을 손자에게 설득하려 하지만 설명을 들은 손자는 할머니도 같이 시골로 내려가자고 제안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안 된다고 했지만 아이들은 계속 따져 물었다.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상식은 무시해도 좋다'고 생각하여 경실은 사돈영감의 시골집에서 함께 살게 된 것이었다. 상처 입은 손자들을 위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손자들에 대한 연민과 사랑으로 잘 키워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다.

경실은 오랜 세월 동안 손자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이러한 태도는 본능적인 모성애의 발현이자 보살핌의 근거이다. 그 모성적 보살핌이 확대되어 세상의 이목을 뛰어넘어 사돈영감과 함께 손자들의 상처를 서로 감싸주며 살아가게 된 것이다. 경실은 세상 상식을 무시한 댓가로 비난을 받지만 그러한 소문들과 억측에도 동요하지 않는다. 경실에게 중요한 것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보듬으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아니다. 결국 주인공은 세상의 시선에 대해 도피한 것이 아닌 사랑으로 모든 것에 초연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변화를 시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글쎄다, 마음이 무슨 빛깔인지 본 적은 없지만 흑심이라면 무슨 뜻일까 짐작이 안 되네. 아이들 보내고 나도 곧 여길 떠날 생각이었지만 월세 든 사람한테도 시간 여유를 줘야 할 거 아니니? 은퇴한 영감님이 집에서 편히 쉬지도 못하고 노인정이나 게이트볼이다 밖으로만 떠도는 게 좀 미안하긴 해도 월세 든 이가 기다려 달라는 동안을 못 참고 보따리 싸들고 동생네 객식구 노릇 하긴 싫더라고. 근데 그동안에 영감님이 돌아가셨어. 자전거 타고 고개 넘다가 구르면서 낭떠러지로 떨어졌는데 발견됐을 때는 이미 숨을 거둔 후였어. 남들은 사고사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지만 난 자연사라고 생각해”

「대범한 밥상」, p.230

경실은 월세 든 사람의 처지를 배려해서 시간 여유를 주고 자신은 동생네 입장을 생각해서 서울로 올라가는 것을 늦춘다. 그녀는 나의 상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라는 인물로,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낸 사회의 실체 없는 관념에 맞추기보다 현재 나와 가족과 이웃의 상처치유를 먼저 생각한다. 사돈 영감이 돌아가신 것도 사고사가 아닌 자연사라고 생각하고 나이가 들어서 맞게 되는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경실은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고 이타적이며 화합을 실현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재산은 더군다나 이 세상에서 얻은 거고 죽어서 가져갈 수 없는 거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 속하는 건데 죽으면서까지 뭣 하러 참견을 해. 이 세상의 법이 어련히 처리를 잘해줄까 봐. 손자들 말고 그거 가로챌 사람 아무도 없어. 손자들이 너무 잘나거나 너무 못나서 제 몫을 못 챙겨도 그게 이 세상에 있지 어디로 가겠나?”

「대범한 밥상」, p.231

경실을 찾아간 나는 유산 양도와 관련하여 참고하고자 사돈 영감이 유서를 어떻게 남겼는지 묻는다. 유서란 욕심 많은 사람이 이승의 영향력을 저승까지 가서 행사하는 것이라며 사돈영감은 그런 걸 쓸 사람이 아니라고 단언하는 모습에서 사돈 영감의 인물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신도 소유권 양도나 재산 분할 등 유산과 관련하여 유서를 남길 생각이 없음을 밝히며 인위적으로 세상을 조절하려 하지 말고 자연에 순리에 맡기라고 조언한다. 즉 박완서는 노년의 죽음을 저항이나 투쟁의 상대가 아닌 자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며 죽은 후의 세상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보다는 자연의 순리에 맡기고 순응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경실의 삶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도 그녀의 상처에 대한 솔직한 고백에 안스러움을 느끼고 인간애를 우선하는 신념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경실의 삶의 방식은 그다지 특별한 일은 아니면서도 일반적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지만 인간적이고 솔직한 모습이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깨달음과 성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찰의 기회를 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노인의 지혜와 관용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인들의 주체적인 삶을 살펴보았다. 작가는 핵가족화 된 현대사회에서 물질만능주의가 가족 간의 유대감을 약화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자식들과 부양문제로 인해 갈등하는 노년 인물들이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원숙함을 긍정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지난날 잘못에 대해 원망하거나 복수하기보다는 포용과 용서, 노인의 관용적 태도로 화해와 상생을 시도함으로써 너그러움과 지혜의 모습도 엿볼 수 있었다. 이런 모습에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작가의 의식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한 부적응과 소외에서 오는 외로움, 노인을 배려하지 않는 사회의 부도덕한 모습을 비판하면서도 작은 관심과 배려로 해소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박완서는 소외된 노인들의 문제에서 세대 간 소통문제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어 그 해결법을 제시하고 있다. 노년의 죽음도 저항이나 두려움이 아닌 자연적인 순리로 받아들이며 자연의 법칙에 순응할 것을 강조한다. 이 과정에서 노인의 원숙함과 관용을 긍정적으로 묘사하여 작가가 지향하는 노년의 삶을 알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Ⅳ. 문학사적 의의

박완서는 자신이 노년이면서 다양한 인생의 경험을 노년 인물을 통해 진솔하게 보여주고 노년의 삶과 현실을 적극적으로 탐색하여 노년 소설의 기틀을 다진 작가라고 할 수 있다.

작가의 작품은 주로 전쟁체험을 바탕으로 한 자전적 소설을 통해 가족의 이별이나 상처 등 전쟁의 참혹성과 비극성을 고발하였다. 그러한 전쟁 중에 가장을 잃고 그 역할을 대신해야 했던 어머니의 강인한 모성애와 삶의 의지를 함께 그려냈다. 또한 고속성장 이면의 물질만능주의 비인간성을 비판하고 중산층의 허위를 고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와 물질적으로 빈곤한 민중들의 삶을 그려내었다. 뿐만 아니라 희생만 강요하는 상황 속에서 맹목적 수용을 거부하고 주체성 확립을 위해 방법을 모색하는 여성상과 함께 여성 억압 현실을 사회제도 속에서도 남녀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평등사상을 그려내었다. 사회구조적으로 모순된 가부장적 제도와 남아선호사상을 비판하고 여성의 주체적인 삶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노년 세대의 사회적 소외, 젊은 세대와의 소통 부재의 노년문제까지 넓히고 있다.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변화양상도 다양하다. 그에 따라 2000년 이후의 박완서의 작품들에는 작가의 나이도 노년인 만큼 대부분 노년 인물이 등장한다. 현대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접어드는 현상에 따른 노인문제는 모든 세대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사회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공동체가 노인 세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노년소설은 모든 세대를 망라하여 자연스럽게 노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박완서는 현대 문학사 속에서 독특한 여성문학의 전통을 재정립했을 뿐만 아니라 노년문학에서는 노년의 인물들을 통하여 나이가 들어도 젊은이들과 다름없이 이성에 대한 설레는 감성이 있으며 새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의욕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늙어감을 자연의 순리로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노인의 삶에서 노년기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이며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현상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관용과 지혜로움으로 해결하는 모습에서 인생의 연륜의 깊이를 보여주었다. 이처럼 다양한 주제와 독특한 문체를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낸 작가로 평가할 수 있다.

박완서의 노년 소설은 노년에서 돌아보는 체험을 바탕으로 자아성찰이라든가 노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현대의 젊은 세대의 모습을 보여주어 서로 고쳐야 될 점은 고치고 서로가 상생하는 법을 제시하는 등 인생의 노년기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 노년기는 소멸해가는 시기, 시작보다는 마침을 준비하고 새로운 시도 보다는 정리를 생각하는 시기, 쇠락해가는 시기라는 일반적 인식을 넘어서서 원숙함과 지혜로운 화해를 지향하면서 진정한 가치를 조명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Ⅴ.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박완서의 단편집 『친절한 복희씨』에 수록된 작품을 바탕으로 주제별 인물분석을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분석해 보았다. 박완서는 다수의 작품에서 화자는 대부분 여성이다. 후기에는 노년여성의 삶에 주목하여 노년의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솔직하고 당당하게 표현하였다. 그의 작품에서 노년인물들은 무관심의 대상이거나 가족들로부터 소외되고 사회적 약자임에도 비관하거나 낙담하기보다 결말은 언제나 희망적이고 용서와 화해로 평화로운 노후 생활을 누리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나이 듦을 자연스런 순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노년의 긍정적 가치를 전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노년의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박완서의 작품은 노년의 삶만을 조명하는데 머물지 않고 인간의 다양한 삶을 사회적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통찰하는 안목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불어 희노애락의 인간의 삶을 포용할 수 있는 노년의 관용과 지혜를 깊이 있게 드러내어 그 가치를 높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움을 위하여」에서는 노인의 재혼문제와 남녀의 역할이 평등하고 서로 존중하는 모습에서 노년의 완숙함과 지혜를 보여주었다. 일반적 관점에서 환갑, 진갑을 넘긴 70대 노인들의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라기보다 '주책'으로 여겨지지만 사촌 여동생은 당당하게 사랑을 선택하여 서로 존중하며 평등하게 생활하는 모습으로 노인의 재혼문제를 긍정적 시각으로 보여준다.

박완서는 전쟁체험의 자전적 소설을 통하여 대부분 가족의 해체와 죽음 등 전쟁의 비극성을 폭로하였다. 「그 남자네 집」에서는 그러한 가족해체의 아픔이나 한(恨)을 그렸다기 보다는 젊은 시절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낭만적 플라토닉 사랑을 추구했던 당시의 사랑은 숭고한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한다. 이를 통해 지난날에 대한 자기 성찰의 모습을 보여준다.

「거저나 마찬가지」에서는 사회 부조리에 대한 비판과 폭로가 잘 나타나 있다. 물질적 빈곤과 보잘 것 없는 학벌을 가진 인물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의 부당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한 대우와 불합리한 사회구조를 고발하였다. 이런 작품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의 성실한 삶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우리 사회의 권력 지향적 모습을 고발하였으며, 관료 사회의 모순이나 진실이 은폐되는 사회의 비도덕적인 분위기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마흔 아홉 살」에서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으나 중년 여성의 의식은 여전히 변화가 없음을 그리고 있다. 중년 여성의 사회참여는 파트타임의 아르바이트거나 봉사활동, 종교적 모임, 동창모임, 학교 자모회, 등으로 그 범위가 협소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정체성을 찾기 위해 방황하는 중년 여성의 모습을 바라보는 작가는 딸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위로와 격려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촛불 밝힌 식탁」, 「그래도 해피엔드」 두 작품을 통해 작가는 젊은 세대의 노인에 대한 무관심을 비판하고 있다. 이 소설들은 노인의 감정과 삶에 대한 애정을 존중하지 못한 사실을 성찰하게 한다. 노인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운 점을 파악하고 노인의 감정을 잘 드러내어 후세대의 관심과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작품은 노년의 삶의 외로움과 쓸쓸한 감정들을 잘 그려내면서 노인들의 감정과 삶을 존중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억압 속에서 고통받는 여성들의 삶의 모습을 소설로 형상화하였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노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런 문제들을 작품화 하였다. 그러나 이런 문제 해결이 대체적으로 여성의 노력으로서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한계라 할 수 있으며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이루어져야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 연구는 친절한 복희씨에 수록된 9편의 단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부 노년의 삶과 소외문제, 부양문제에 나타난 작중인물을 분석하면서 총체적이고 포괄적이지 못한 점과 전반적으로 비교하여 제시하지 못한 점에서 아쉬운 면이 있다. 앞으로 이 점을 보완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시대와 주제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연구는 다음 과제로 남겨둔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참 고 문 헌>

1. 기본자료

『친절한 복희씨』, 문학과 지성사, 2008.

「그리움을 위하여」([현대문학], 2001년 2월)

「그 남자네 집」([문학과 사회], 2002년 여름호)

「마흔아홉 살」([문학동네], 2003년 봄호)

「후남아, 밥 먹어라」([창작과 비평], 2003년 여름호)

「거저나 마찬가지」([문학과 사회], 2005년 봄호)

「촛불 밝힌 식탁」([촛불 밝힌 식탁], 동아일보사, 2005)

「대범한 밥상」([현대문학], 2006년 1월호)

「친절한 복희씨」([창작과 비평], 2006년 봄호)

「그래도 해피 엔드」([문학관], 통권32호, 한국현대문학관, 2006)

2. 논문 및 평론

강인숙,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도시와 모성』, 둥지, 1997

곽세나, 「박완서 소설의 여성상 변모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권명아, 「박완서 문학연구-억척 모성의 이중성과 딸의 세계의 의미를 중심으로

권영민, 『한국 현대소설의 이해』, 태학사, 2006.

김경수, 「삶의 무게가 실린 글의 가벼움-이청준과 박완서의 신작」, 『현재문학』517호, 1998.」, 『작가세계』, 1994.

김경연, 『여성해방의 시각에서 본 박완서의 작품세계』, 창작과 비평, 1988.

김경희, 「한국 현대소설의 모성성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김병익, 「노년소설 침묵 끝의 소설: 노년과 중년기 작가의 변모와 기대」, 『한국문학』, 1974. 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김보민, 「한국현대 노년소설연구」, 인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김소연, 「박완서 단편소설에 나타난 노년의식 고찰」,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김승옥, 「빛 마랜 삶들」, 『문학사상』, 1983.6.천이두, 「원숙과 패기」, 『문학과 지성』, 1976. 여름호.
김영무,「박완서의 소설세계」『세계의 문학』, 1997.
김영희, 『근대체험과 여성-박완서·김인숙·공선옥의 소설』, 창작과 비평, 1991.
김윤식, 「한국 문학 속의 노인성 문학-노인성 문학의 개념 정리를 위한 시론」, 『소설, 노년을 말하다』(김윤식, 김미현), 황금가지, 2004.
김윤정, 「박완서 소설의 젠더의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김지영, 「박완서 소설의 문학 교육적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김혜경, 「박완서 소설의 노인문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김홍신, 「1970년대 소설에 나타난 산업화 양상」,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노현주, 「박완서 소설의 자아실현욕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박성천,「박완서 자전소설의 서술전략」, 『한국언어문학』, 한국언어문학회, 2006.
박완서, 「나에게 소설은 무엇인가」, 『박완서 문학앨범』, 웅진출판사, 1992.
박완서, 『못 가 본 길이 더 아름답다』, 현대문학, 2010.
박혜숙, 『소설의 등장인물』,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박현실, 「한국 노년소설의 갈등 양상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서재숙,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중년여성의 의식 연구」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손수경, 「박완서 소설에 나타나는 인물의 주체성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손윤권, 「박완서 자전소설 연구: 상호텍스트 안에서 담화가 변모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송지현, 『페미니즘 비평과 한국소설』, 국학자료원, 1996.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염무웅, 「사회적 허위에 대한 인생론적 고발」,『세계의 문학』, 1979.
오승영, 「박완서 친절한 복희씨의 갈등구조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윤병로,「분단 극복을 위한 민족적 정서로의 승화」,『박완서 문학상 수상 작품집』, 훈민정음, 1993.
윤철현,「박완서 소설 연구」, 부산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이귀영, 「박완서 소설의 일상성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이동하,「70년대의 소설」, 『한국 문학의 현 단계』, 창작과 비평, 1982.
이선영,「세파속의 생명주의」, 『현대문학』, 1985.
이선미,「여성언어와 서사」, 『작가세계』, 2000, 가을.
이선미,「박완서 소설의 서술성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이수봉, 「박완서 노년소설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이월영, 이희경, 장미영 공저, 『여성문학의 어제와 오늘』, 태학사, 2001.
이은하,「박완서 소설의 갈등 발생 요인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이재선, 『현대 한국소설사 1945-1990』, 민음사, 1991.
이재선, 「한국문학 주제론」,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6.
이정희, 『오정희·박완서 소설의 두 가지 풍경』, 청동거울, 2003.
임규찬,「박완서와 6·25체험」, 『박완서 문학 길찾기』, 세계사, 2000.
정미숙,「박완서의 주관적 관계론의 시점」, 『한국 여성소설 연구 입문』, 태학사, 2002.
정미숙, 유제분, 「박완서 노년소설의 젠더시학」, 『한국문학논총』(제54집), 한국문학회, 2010.
정은비, 「박완서 단편소설에 나타난 여성성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조혜정, 「박완서 문학에 있어 비평이란 무엇인가」, 『작가세계』, 1991.
조희경, 「일상 속의 진실 캐기-박완서론」, 『치유와 회복의 서사』, 푸른사상사, 2005.
최명숙, 「한국 현대 노년 소설 연구」, 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최신덕·김모란, 『노년의 사회학』, 하나의 학사, 1998.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최진숙,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노년의 삶 연구」,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하응백, 「모성, 그 생명과 평화」, 『배반의 여름』, 문학동네, 2006.

한상희, 「박완서 소설의 인물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한송이, 「박완서 단편소설의 자전적 인물 변화양상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황광수, 「민족문제의 개인주의적 굴절」,『창작과 비평』, 1985, 가을.

황도경, 「이야기는 힘이 세다-박완서 소설의 문체적 전략을 중심으로」, 『실천문학』 통권29호, 2008.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bstract>

A Study on Characters in Park Wan-Seo's Novel - Focusing on 『Kind Mrs. Bokhee』 -

Lee, Jae-weo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Moon, sung-sook

This study is to understand better Park Wansuh's literary works, through character analysis of short stories, contained within novel "Kind Mrs. Bok-hi".

As getting older, of herself, the author figured her attention to an old age life through her novel works, and it demonstrated her widen philosophical views and values on living a life. Old age novels of Park Wansuh are based in various experiences and perception of life and evaluated highly by other scholars.

On "Kind Mrs. Bok-hi", the old aged mainly appear.

The author, with her aging, dealt with the matter of perception regarding old people and of conflicts with children and then, through this, revealed old peoples' problem, as elements of novel structure, various life aspect of the aged, such as old people's social isolation and more, suggested solutions regarding problems.

On Chapter II, reviews of conception, suggested by precedent study and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definition of the range and novel pieces of her later work and then, the perception of old age novels, mainly written in her later period is suggested.

And is analyzed of characters from "Geuriumeul wihayeo" (Tribute to Longing), Geu namjaeui jip (That Man's House), Hunama bap meogeora (Hu-nam, It's Time for Dinner), Geojeona machangaji (Almost Free), which all refer instructive themes whereby 'self-introspection or a reconciliation' solves conflicts on the aged's isolation and self identity issues, with a subject like as a positive self-introspection or a reconciliation.

And is to find out the meaning as a rediscovery of life in the twilight years, or as having still emotional affection just like young people, regardless of getting older, through a new love story of old man with an age, over 70.

With the old woman's narration, compared with earlier pieces before, the perspective of marriage has changed from materialistic traditional values to real love and gender equality,

And the issue on the remarriage of the elderly is described with a positive view, showing that without hesitating to choose love with an age over 60 and to make a harmonious living together with all reciprocal respect.

Through this, it emphasized the maturity and the wisdom of the aged.

Even with her autobiographical novel about war experience, instead of the emphasis on miserable situation of war or violence, it is drawn using flash back of a old lover, and drawn as the self-examination by reflecting old faults in past time.

On Chapter III, it is analyzed and is apprehended the aspect of characters, drawn the dignified appearance and wisdom of the old aged, inside Park Wansuh's works.

And furthermore, is positively adapted, in all aspects, by describing a harmonious family life, connected with reconciliation and communication, through recognizing mother's love, inspire of being damaged and isolated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socially, under social structure with gender inequality.

And that is exactly what the author means about maturity, sensitivity, generosity and comprehension from the aged.

<Dinner table with candlelight>, <Anyway happy ending>from those two pieces, the author criticizes indifferences of the young generation about the old and makes a deep consideration on their disrespectfulness for old people's feeling and affection on their life, and more, underlines the need of attention and communication as well, through well-described feelings and real life problems of the old aged.

This novel described well of the loneliness and the solitary feeling of old ages' life, and expressed the respect with feeling and life of the aged.

And again, life figures of women, suffering under the social oppression, is embodied in within stories of novels.

Following these factors, it is realized that the author paid a big attention to women and old people as weak class in society and used them as elements of novel structure.

And old age novels of Park Wansuh educed enjoying a peaceful old age life way through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with a hopeful conclusion, however dragging up real life stories and practical problems of the old aged, instead of giving illusion and expectation about old ages' life.

From this point of view, her work is very significant to deliver the author's positive values to those who are afraid of aging itself and of accepting it as a natural aspect.

Park Wansuh's works are not focusing only on the life story of the aged, but expand various issues related with general human life into social issues and lead to comprehension and consideration on it.

And it is significantly recognized her discerning eye of an insight with a broad view and appreciation, suggesting social communication method between generations.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